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11월

발행일 : 2025년 10월 31일

KOTRA VIETNAM BUSINESS NEWS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2
✓ 미국 통상정책 주요 동향 관련 해외시장뉴스	27
✓ <팀코리아협의회동정>푸토성-한국 기업 네트워킹 포럼	29
✓ <기업탐방> 스피어에이엑스	김광휘 법인장 32
✓ <법률> 최근 베트남 법률 개정 안내	전현우 변호사 36
✓ <회계>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20탄	엄진용 회계사 38
✓ <통관>수출가공기업전환 시 투자프로젝트 부가가치세 환급	이여람 관세사 40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하핀성>	42
✓ <이달의보고서> 뜨는 품목 뜨는 시장 : 절연 전선-케이블	51
	미국 화장품 시장 트렌드 및 K-뷰티 진출전략
✓ <이달의전시회> 2025 베트남 하노이 식음료 및 식품 가공기기 전시회	52
✓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53
✓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58





베트남 의약품 시장동향

- '원료 국산화'와 '규제 완화'로 날개 다는 베트남 제약 산업
- 현지 의약품 유통, 병원·약국 중심이지만 도매상, 수입업체, 온라인 채널도 혼재

상품명 및 HS코드

의약품은 HS 3004.90에 해당하며, 치료·예방용으로 사용되는 혼합·비혼합 의약품 전반을 포괄한다. 이 범주는 암·심장질환 치료제부터 항생제, 해열제, 항말라리아제, HIV/AIDS 치료제 등 다양한 세부 품목(8단위 코드)을 포함하며, 베트남 시장·통상 통계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완제의약품 기준으로 정책·유통·관세가 논의된다. 요컨대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수입·관세·규제·유통 논의의 기준 품목군이 3004.90이며, 이후 지표·정책 해석 역시 이 코드에 연동돼 제시된다.

시장동향

베트남 의약품 시장은 최근 연평균 약 7%의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해 핵심 보건 산업으로 자리잡았고,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보편적 의료 서비스 확충 정책이 수요 기반을 넓히고 있다. Fitch Solutions(2025.8) 추정에 따르면 총매출은 2023년 5.98억 달러 → 2029년 8.84억 달러로 확대되고, 1인당 구매액도 60.5달러 → 86.4달러로 상승한다. 한편 GDP 대비 의료비 지출비와 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중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가 제시되는데, 이는 전체 의료비 구조 다변화 및 제도·소득 변화의 영향을 시사한다. 정부 역시 원료 국산화를 제고, 천연·건강보조·화장품 원료 확대, 수출 촉진을 통해 제약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이며, Decision No.270/QĐ-TTg(2025.02.13.)에서 2030 목표-2045 비전을 명확히 했다(원료 자급률 제고, 천연 의약품 수출 증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산업 연평균 8~11% 성장 등).

수입동향

HS 3004.90 기준 2024년 수입액은 23억 5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0.5% 증가했다. 주요 조달처는 프랑스(11.9%)가 1위, 인도(10.3%), 중국(9.5%), 미국(8.2%), 한국(5.5%), 이탈리아(4.9%)가 뒤따르며 스웨덴·호주(각 4.8%), 스페인(4.2%), 아일랜드(3.6%)가 상위권을 구성한다. 국가별 증감률을 보면 미국(+68.2%), 스웨덴(+73.0%), 아일랜드(+48.1%), 한국·이탈리아(각 +36.3%) 등 주요 선진권과 생산거점의 확대가 두드러지고, 인도(+26.4%), 스페인(+28.1%), 호주(+27.1%) 등도 의미 있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흐름은 베트남의 품목 다변화 및 공급 안정성 제고 노력과 맞물려, 고부가 전문의약품·제네릭·바이오의약품 수입 구조가 폭넓은 국가 포트폴리오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쟁동향

베트남에는 약 1,000개 제약사가 존재하며, 외국계 비중 약 30%로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크다. 전체 시장의 50% 이상이 수입 의존인 가운데, 현지 생산품의 절반가량에도 외국 기업이 관여할 정도로 글로벌 참여가 활발하다. 현지 대표사로 DHG, Traphaco, Imexpharm, Bidiphar, Domesco, TV.pharm, OPC 등이 전국 유통망과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로 입지를 강화한다. 외국계로는 Sanofi(프랑스)가 호치민 거점을 중심으로 기술력·신약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했고, Pymepharco는 베트남 로컬이지만 독일계 자본 참여 사례로 외자 유치형 성장 모델을 보여준다. 한국 기업 또한 동화약품(약국체인 지분 인수·확장 계획), 셀트리온(법인 설립·허가 등록), 오가노이드사이언스(Vinmec 협업), 동구바이오제약·메디톡스·삼진제약·제뉴원사이언스(MOU·기술이전·등록), JW중외·한국유나이티드·신풍대우파마·대웅·대원제약(법인·공장·입찰 참여), 삼일제약·씨티시바이오·서흥·종근당·한미·조아제약 등 다층적 진입·생산·유통 전략이 병행되는 양상이다.

유통구조

베트남 의약품 유통은 병원·약국 중심이지만, 도매상·수입업체·온라인 채널이 혼재된 다경로 구조다. 제조사는 병원 입찰을 통해 조달되거나 약국 소매망으로 공급하며, 도매유통-도매시장-소매(병원/약국)-환자에 이르는 다양한 흐름이 병행된다. 수입 의약품은 수입업자/유통업자를 거쳐 입찰-병원, 혹은 병원/약국 직접, 또는 도매시장 경유 방식으로 유통되며, 공식·비공식 유통이 공존하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관세율은 품목별로 일반 0~5% 수준(일부 0%)이며, AKFTA·VKFTA·RCEP 등을 활용하면 대부분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세부품목별로 HIV/AIDS 치료제, 데페록사민 주사제, 수액류 등은 일반세율도 0%가 제시되고, 프로카인염산 함유, 디클로페낙(경구), 말라리아 성분 함유 등 일부는 3~5%가 적용되지만 FTA 적용 시 0% 또는 3%로 낮아진다. 결과적으로 FTA 활용 여부가 가격경쟁력을 좌우해 입찰·유통에서 전략적 변수가 된다.

시사점 및 진출전략

약사법(Law No.44/2024/QH15)과 시행령(Decree No.163/2025/ND-CP)은 등록·유통·수입·임상시험·품질관리 전반의 기본 규율이며, 약국 운영, Rx/OTC 구분, 임상시험 관리체계도 이 법체계에 근거한다. Circular No.12/2025/TT-BYT 개정으로 CPP 요건 간소화, 임상 승인기간 단축(12개월→90일), 참조 등록 경로 신설(EMA/SRA 승인품 9개월 내 등록), MA 갱신·보완 절차 유연화, OTC 온라인 판매 허용 등 규제 완화가 도입돼 등록 효율성과 시장 접근성이 개선됐다. 시사점으로, 정부의 원료 국산화·신약개발·임상 지원과 인력 양성·국제협력 강화 기조 아래, 만성질환·고령화 수요가 중장기 성장성을 담보한다. 이에 기업은 현지 파트너십·기술이전·현지 생산과 FTA 기반 가격경쟁력, 완화된 등록·허가 절차를 결합해 입찰·민간 유통 동시 공략이 요구되며, 변화하는 규제 환경을 선제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시장 진입·확대의 핵심 전제가 된다.



VR·빅데이터·챗봇으로 진화하는 베트남 다낭의 스마트 관광

- 베트남의 스마트 관광 정책과 디지털 전환 트렌드 확산 움직임
- 특히 대표 관광도시인 다낭의 관광+ICT 접목 사례에 주목할 필요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관광 혁신

팬데믹을 계기로 가속화된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은 관광산업 전반에서 수요 대응력·운영 효율·부가가치를 끌어 올리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학계는 스마트 관광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연적 발전 경로로 규정하며 ICT 인프라와 데이터 활용을 경쟁력의 핵심으로 본다. 정부는 결정문 3570/QD-BVHTTDL(2022.12.21)로 ‘4.0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관광 발전 계획’을 승인, 다낭·하노이·호찌민시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 관광 플랫폼, 관광객 빅데이터 분석, VR/AR 체험 서비스, 통합 온라인 예약 등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로써 방문자 경험의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구축을 병행해 국제 경쟁력 제고를 꾀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도 친환경 모빌리티 도입과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로 발맞추고 있다.

스마트 관광 관련 베트남의 대표 스타트업 기업

정부 계획과 신기술 접목 흐름 속에서 예약·운영·정보 제공을 아우르는 관광 플랫폼형 스타트업이 활발하다. 예를 들어 ezCloud는 클라우드 기반 관광 비즈니스/관리 플랫폼을 제공하고, Go2Joy는 숙박 예약을 중심으로 성장한 스타트업이며, Luxstay와 VNTrip은 호텔·항공 예약 및 여행정보 포털 서비스를 운영한다. Travala는 블록체인 기반 예약 모델을, VLeisure는 B2B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향한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온라인 예약 편의성, 결제·정산 효율, 파트너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디지털 전환의 현장 적용을 가속한다는 데 있으며, 이는 정부·지자체의 스마트 관광 인프라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다낭시 관광 현황

다낭은 중부 베트남의 대표 관광 허브로서 해변·자연경관, 국제공항·호텔 인프라, MICE 확충, 교통 개선, 디지털 전환이 맞물리며 빠르게 성장했다. 국제 관광객 수는 2015년 125만 명 → 2019년 350만 명으로 증가했다가 팬데믹으로 2020년 70만 명, 2021년 11만 명까지 급감했으나, 2022년 회복세로 전환해 2023년 198만 명, 2024년 약 411만 명으로 팬데믹 이전을 크게 상회했다. 회복 동력은 항공 네트워크 재가동과 체류 인프라 확충, 도시 차원의 디지털/스마트 정책 효과로 요약되며, 다낭은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한 주요 관광도시로 평가된다.

다낭시 스마트/디지털 관광의 현주소

다낭은 관광을 디지털 미래 전략의 축으로 삼아 금융·IT 역량을 관광 서비스에 접목하고 있다. 박물관·문화유적에 3D 맵핑·인터랙티브 스크린·다국어 오디오 가이드·챗봇 안내를 도입해 몰입감과 정보 접근성을 높였고, QR 기반 챗봇으로 운영시간·추천 코스 등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Experience Passport'로 명소·맛집 방문 기록과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며, 'VR360'·'One-Touch Da Nang'을 통해 사전 360도 가상 투어를 제공한다. 숙박·교통·입장권의 통합 예약/결제와 빅데이터 추천도 확산 중이다. 분야별로는 VR/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공간 체험('Metaverse Da Nang'), AI 기반 가상 비서와 호텔 자동화/고객관리, 디지털 경험 패스포트(TripC의 푸드·유산·그린 투어), IoT 호텔 스마트관리(4~5성급 약 30%), AI 자동 해설 장치(씨클로 투어) 등이 대표 사례다. 더불어 도시 차원에서는 관광-ICT 융합 전시회(HORECFEX Vietnam)를 통해 AI·VR/AR·로봇 등 실제 적용 가능한 기술을 공유·확산하고, 종사자·기업 간 네트워킹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 동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시사점

다낭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의 관광 디지털 전환은 방문객 경험의 질적 향상과 도시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동시 달성하는 전략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ICT 솔루션·통합 플랫폼, 데이터 분석, VR/AR 콘텐츠, 관광 스타트업 생태계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가치사슬 고도화를 견인한다. 앞으로도 다낭시는 인프라·데이터베이스 구축과 UX 중심 신규 서비스를 공공 차원에서 지속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참여할 경우 스마트 관광 솔루션, 몰입형 AR/VR 체험, 콘텐츠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이 가능하다. 이러한 협력은 중장기적으로 기술·문화 교류 확대와 관광·ICT 산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정수기 시장 동향

- 베트남 정수기 시장, 도시화와 수질 오염에 대한 경각심으로 꾸준한 성장
- 한국 기업, FTA 활용 및 현지화 제품, A/S 네트워크 구축으로 차별화 전략 필요

상품명 및 HS Code

정수기는 HS 8421(액체·기체용 여과기/청정기) 중 8421.21에 해당하며, 가정용·비가정용 여과·청정 장치를 포괄한다. 세부로는 가정용 여과기(8421.2111), 기타(8421.2119), 전기로 작동(8421.2122), 전기 비작동(8421.2123) 등이 구분되며, 베트남 시장의 수입·관세·유통 통계 해석은 이 코드 체계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즉, 본 보고서의 시장 규모, 수입 동향, 관세·인증 논의는 8421.21 정수기를 중심으로 제시된다.

시장동향

생활 수준 향상과 안전한 식수 확보 수요 증대로 베트남 정수기 시장은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한다. 특히 젊은 인구 구조와 빠른 도시화가 수요를 견인하고, 산업·농업 폐수 등으로 인한 수자원 오염과 공공 수돗물에 대한 낮은 신뢰가 가정 내 정수기 보급을 촉진한다. Fortune Business Insights에 따르면 시장 규모는 2023년 4.739억 달러 → 2024년 5.232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약 11% 성장해 2032년 약 11.792억 달러가 전망된다. 배경 측면에서 베트남은 1인당 연간 사용 가능 수자원이 3,840㎥로 물 부족 국가 기준(4,000㎥)에 해당하고, 산업단지 3곳 중 1곳의 폐수처리 미비, 도시 생활하수 70% 이상 미정화 방류, 메콩 델타의 농약·비료 유입 등이 수질 악화를 초래한다. 보건 당국은 수인성 감염병 비중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환경이 정수기 수요를 구조적으로 확대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수입동향 및 대한 수입규모

베트남의 정수기(HS 8421.21) 수입액은 2022년 1.396억 달러 → 2024년 1.542억 달러로 증가했다. 중국이 7,280만 달러(비중 47.2%)로 압도적 1위를 유지하며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물량을 확대했고, 일본은 2,463만 달러(16.0%)로 고품질 수요 기반의 안정적 점유를 보였다. 한국은 2022·2023년 2위였으나 2024년 1,594만 달러(10.3%)로 감소하며 3위로 하락했는데, 중국·일본 대비 가격 경쟁력 열위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62.3% 증가), 인도(918.2%), 말레이시아(161.9%) 등 일부 공급원의 빠른 증가가 관찰되며, 베트남(내국수출입제도 활용)이 5위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가성비 중시 다수 소비층과 프리미엄 선호 중산층 이상으로 시장이 양분되어, 한국 기업에는 가격경쟁력 보완과 제품 차별화의 동시 추진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요 브랜드

현지 강자인 캥가루(Kangaroo), 카로피(Karofi)는 직수형·싱크대 하부 설치형 등 대중적 제품군과 합리적 가격·조밀한 유통망·현지 맞춤형 전략을 통해 높은 점유율을 유지한다. 글로벌로는 샤오미가 가격 경쟁력·소형 디자인으로 젊은 층을, 파나소닉이 알칼리 이온수기·RO 일체형 등 프리미엄 라인업으로 내구성·안정성을 중시하는 수요를 공략한다. 코웨이·서울아쿠아 등 한국 기업은 냉온정수 디스펜서·하부 설치형 중심의 프리미엄 포지션을 강화하고, 세련된 디자인·편의성을 앞세워 가정·오피스 수요를 동시 공략하는 추세다.

유통구조

정수기는 설치·보증·필터 교체 등 A/S 중요도가 높아 오프라인 대형 전자제품 매장·전문 대리점·일반 소매점이 핵심 유통망으로 기능한다(Kantar). 도시 지역일수록 브랜드 인지도·A/S 접근성을 중시해 전자제품 전문 매장 채널 비중이 높고, 농촌에서는 대형 전문점 부족으로 슈퍼마켓·로컬 매장 의존도가 크다(Statista). 관세 측면에서 8421.21 일반 수입세율은 7.5%이며, AKFTA·VKFTA 활용 시 원산지 기준 충족과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전제로 관세 0% 적용이 가능해 가격 경쟁력에 직결된다. 결과적으로 대도시 프리미엄·서비스 중시 채널과 농촌 가성비 채널이 공존하며, FTA 혜택의 적극 활용이 유통·입찰 경쟁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작동한다.

시사점

정수기는 위생·품질 관리 대상 생활용품으로 국가 기준·세무·관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관련 규정으로 TCVN 11978:2017(가정용 정수기 국가기준), 공문 5873/TCHQ-TXNK(정수기·이온수 장치 분류 지침), 공문 68845/CT-TTHT(구성품 설치 후 재판매 시 세무절차)가 안내되어 있으며, FTA 특혜 관세 관련으로는 Decree 149/2017, 157/2017, 57/2020 및 Circular 83/2014가 제시된다. 시사점으로, 도시화·수질오염 경각심 확대에 따라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나, 가격 민감층 vs 프리미엄층의 이원화가 뚜렷하다. 이에 한국 기업은 FTA를 통한 관세 절감, 현지 수질·생활 패턴 반영 모델(저가 보급형과 프리미엄 이중 포트폴리오), 설치·보증·필터 교체까지 아우르는 A/S 네트워크를 결합한 현지화 전략으로 차별화를 도모해야 하며, 도시 대형 유통망과 농촌 로컬 채널 동시 공략이 점유율 확장의 관건으로 제시된다.



AI·친환경 바람 타고 성장하는 베트남 데이터센터 시장

- 2030년까지 35억4000만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외국인 100% 투자 허용·그린 인증 의무화로 구조적 성장기대

베트남 데이터센터 시장현황

베트남 데이터센터 매출은 2025년 25억7천만 달러, 2030년 35억4천만 달러로 전망되며(Statista), '25~'30년 연평균 6.59% 성장이 예상된다. 수요 배경은 디지털 전환 가속에 따른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인프라 확대다. 시설 등급 측면에선 Tier 3가 2024년 약 88%로 주류지만, 무중단 운영과 최고 안정성을 요구하는 워크로드 증가로 Tier 4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AI 연산·HPC 등 미션 크리티컬 수요가 급증하면서 2024~2029년 Tier 4 연평균 46% 성장이 전망되어, 단순 보관형에서 고성능 처리를 위한 상향 투자가 시장 변화를 주도한다(Mordor Intelligence).

새로운 성장 동력, '그린 데이터센터'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친환경(그린)으로 이동 중이다. 대형 고객사는 Green Standard 인증을 계약 요건으로 요구하며, 운영사들도 에너지 효율·냉각 최적화 역량을 투자 기준으로 삼고 있다. AI·빅데이터 확산은 기존 대비 전력 2~5배, 냉각수 대폭 증가를 유발해 전력망 부담을 키우는 만큼, 베트남은 전력 인프라 확충과 효율화를 병행 중이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발전설비 총용량을 2023년 15만489MW → 2025년 18만3천~23만6천MW로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했고, 그린 데이터센터·그린 5G를 핵심 방향으로 천명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인증·에너지 절감 기술은 선택이 아닌 사실상 의무로 자리잡는 추세다.

개방과 비용효율, 베트남 데이터센터 시장의 두 축

개정 통신법(2024.7)으로 데이터센터·클라우드 분야의 외국인 지분 제한이 전면 폐지되어 100% 단독 소유·운영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사이버보안법(2019), 개인정보보호법(2026.1 시행)의 데이터 현지화 조항과 맞물려, 국내외 서비스 사업자는 베트남 내 저장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현지 데이터센터 수요의 구조적 증가가 예상된다. 비용 측면에서도 MW당 평균 건설비 약 690만 달러로 아태 주요국 대비 저렴하여(대만 다음), 중국·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보다 비용 우위가 뚜렷하다(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이로써 토지·에너지 제약이 큰 싱가포르의 대안지로 부상하며, 글로벌 자본의 하이퍼스케일 투자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현지에선 Viettel IDC·VNPT·FPT Telecom 등이 주도하고, 해외 투자사들도 잇따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베트남의 주요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현황

현재 상업용 DC 41개, 12개 기업이 운영하며 총 설계용량 221MW 수준으로, 하노이·호치민·다낭·빈증 등 산업 거점에 분포한다. Viettel IDC·VNPT·FPT Telecom·CMC Telecom 등 통신 대기업과 함께 NTT DATA, ST Telemedia GDC, Edge Centres, Gaw Capital, Infracrowd Capital 등이 참여한다. 신규 프로젝트로는 Viettel의 High-tech R&D and Data Center(호치민 구찌, 140MW, '26년 1분기 1단계), An Khanh Data Center(하노이, 60MW, '26년 2분기 1단계), SAM DigitalHub(빈증, 150MW, '27년 1단계), CMC Hyperscale Data Center(사이공하이테크파크, 30~120MW), AIDC DeCenter(다낭하이테크파크, 최소 10MW) 등이 거론된다. 특히 구찌 140MW급 슈퍼스케일은 100MW 초과 최초 설계로, AI 연산·하이퍼스케일 수요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된다.

시사점

현지 최대 사업자는 “시장 잠재력 충족을 위해 DC 용량이 15배 확대돼야 한다”고 진단하며, 글로벌 차원에서도 AI 서버 비중이 2024년 46% → 2025년 약 70%로 급증한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대형 IT사는 직접 건설보다 임차 확대 경향을 보이며, 이에 따라 외주형 대규모 투자가 늘고 있다. 전력 인프라 확충·친환경 기술 투자가 병행되는 베트남은 AI 인프라의 신규 거점으로 부상 중이며, 정부의 친환경 디지털 전환 기조에 힘입어 에너지 효율·재생에너지 연계 등 관련 솔루션 수요가 커질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개방(100% 외자 허용)·비용 우위·현지화 규제(데이터 현지화)가 삼각 축을 이루며, 그린 인증 대응과 고가용성 설계(Tier 4 지향)를 갖춘 사업자가 중장기 성장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폴리에틸렌 시장동향

- 수입 의존형 구조 속 자급기반 확충 중인 베트남 폴리에틸렌 산업
- 환경 규제 강화와 친환경 소재 전환이 가져올 시장 기회

상품명 및 HS코드

폴리에틸렌(PE)은 에틸렌의 반복 결합으로 형성되는 범용 열가소성 수지로, 밀도·분자구조에 따라 LDPE/HDPE 등으로 구분되며 비닐봉지, 포장재, 파이프, 용기 등 광범위한 용도에 쓰인다. 관세·무역 통계상 본 보고서의 기준 품목은 HS 3901.20(비중 0.94 이상 PE)이며, 베트남 내 수입·관세·유통 및 정책 논의는 이 코드에 연동해 전개된다.

시장동향

베트남 플라스틱 산업은 최근 5년간 연 12~15%의 고성장을 지속했고, 약 4,000개 기업이 내수 확대와 함께 160여 개국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연 450만~500만 톤의 원료 수요 중 국내 생산능력은 약 95만 톤에 그쳐 자급률 30% 내외, 70% 수입 의존 구조다. 2024년 9월 말 가동된 룡선(LS P) 석유화학 콤플렉스로 에틸렌 95만 톤·PE 95만 톤/년의 능력을 확보하며 기초 원료 생산에 진입했으나, 국제 정세·유가 변동 등으로 2주 만에 일시 종단을 겪었다. 이후 원유 가격 하락 등 여건 변화로 올해 8월부터 재가동에 들어가 공급망 다변화와 수입 의존도 완화 기대를 키우고 있다. Fitch Solutions가 제시한 생산 전망에 따르면 2024년부터 에틸렌·PE 각 95만 톤이 반영되고, PP는 2025년 157만 톤으로 증설되며, PVC는 연 32만 톤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제시된다.

수입동향

HS 3901.20 기준 2024년 베트남의 PE 수입액은 약 9억5,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한국은 18억8,263만 달러(점유율 19.8%)로 1위를 유지했으나 -6.9% 감소했고, 사우디아라비아(19.5%, +6.6%), 태국(15.4%, +17.1%)이 뒤를 이었다. 미국(9.6%), 아랍에미리트(6.9%)도 주요 공급원이며, 인도(+114.0%), 말레이시아(+103.5%), 러시아(+55.6%) 등 신규·증가 국의 급증이 관측되어 공급선 다변화가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베트남 수요는 확대되는 반면 특정국 의존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되는 양상이다.

경쟁동향

국내에서는 LSP(룡선 석유화학)이 사실상 유일한 대형 PE 생산기지로 상징성을 갖고 원료를 공급하며, 그 외 대량 물량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주도한다. 해외 측에서는 롯데케미칼(한국), SABIC(사우디), PTT Global Chemical(태국) 등이 현지 생산보다는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해 영업법인·유통법인을 통해 시장을 공략하는 구조다. 정부는 룡선 가동 등으로 자급률 제고를 추진하지만, 수요의 70%+를 수입에 의존하는 현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업체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 별도로 베트남 석유화학 원료 프로젝트 현황에서는 Hyosung Vietnam(프로필렌/PP), LSP(에틸렌·HDPE·LLDPE·PP) 등의 CAPA와 완공연도가 제시되어, 중기적으로는 PP·PE 축의 국내 생산 기반 확대가 진행될 것으로 정리된다.

유통구조

PE는 수입 의존도가 높아 전문 유통사/수입업자 → 최종 가공업체로 이어지는 간접 경로와, 대형 가공·제조사가 직접 수입하는 경로가 병행된다. 이렇게 유입된 원료는 포장재·건설자재·생활용품 등으로 전방 산업에 공급된다. 관세 측면에서 HS 3901.20.00의 MFN 기본세율은 5%이며, AKFTA·VKFTA·RCEP 등 FTA 원산지 요건 충족 시 0% 특혜 적용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조달 채널의 안정성과 FTA 적용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동시에 중요한 유통·영업 변수로 작용한다.

인증정보 및 시사점

베트남은 플라스틱 폐기물 대응을 위해 환경 규제 강화를 진행 중이다. Decree 08/2022/ND-CP는 비생분해성 비닐봉투의 생산·수입 제한(규격 기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화, 특정 일회용·비생분해성·미세플라스틱 제품 생산·수입 중단 일정과 특정 장소 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일정을 제시했다. 이어 Decree 05/2025/ND-CP는 재활용 계획서 제출, EPR 기금 부담금 납부, 친환경 대체소재 도입 시 인증 간소화 등 이행 장치를 보완했다. 시사점으로는 높은 수입 의존과 롱선 가동에 따른 국내 공급 확대라는 구조 변화 속에서, 기업은 FTA 기반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재활용 용이 소재·고기능성 제품 등 친환경·고부가 영역으로 포지셔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 대형 수요처·핵심 유통망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베트남 식문화 속에 자리 잡은 K-Food

- 한류 콘텐츠에서 식탁으로, ‘보는 한류’가 ‘먹는 한류’로
- 현지화·유통 다변화로 자리 잡은 K-푸드 시장

K-콘텐츠로 확장된 K-푸드 열기

베트남에서는 드라마·예능 등 K-콘텐츠가 만든 ‘한국 친숙도’가 실제 식품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K-푸드 콘텐츠 지출액 17.8달러로 전년 대비 40.2% 증가했고, 콘텐츠 소비 후 실제 구매 전환율 84.3%로 뷰티를 상회했다. 대학생 대상 인지도는 김밥·김치·떡볶이·비빔밥·삼겹살 순으로 높고, 첫 경험 품목도 김밥·김치·떡볶이·라면·삼겹살 등으로 콘텐츠 속 간접 경험이 초도 구매로 연결되는 양상이다. 외식 프랜차이즈 확장도 빠르다. 2018년 남부에 1호점을 낸 두끼떡볶이는 전국 134개점으로 성장했고, 롯데리아(222개), 뚜레쥬르(40개) 등 한국 F&B 브랜드가 다각도로 진출하며 ‘보는 한류’가 ‘먹는 한류’로 확산되고 있다.

베트남 식음료 시장을 이해하는 두 개의 키워드: 합리적 소비, 현지화

베트남 식음료(F&B) 시장은 도시화·중산층 확대·젊은 소비층을 기반으로 확대 중이며, 2024년 688.8조 동(약 261.5억 달러)로 16.6% 성장했다. 다만 이 성장에는 펫(설) 특수가 반영돼 있고, 경기 둔화·원자재 상승으로 전반적 부담이 존재한다. 가구당 식음료 지출(평균 600만 동, 소득의 약 30%)은 소득·거주지에 따라 외식·가공식품 비중이 달라지나, 공통적으로 가격 대비 가치 선호가 두드러진다. 유통 측면에서는 전통의 대형마트·소매점·외국계 식료품점이 주축인 가운데, Shopee·Lazada·TikTok Shop 등 전자상거래 이용이 증가하고, ‘못난이 농산물’ 같은 가성비 콘셉트가 SNS에서 호응을 얻는다. 스낵류는 경기 기대·신제품 출시에 힘입어 견조하며, 예컨대 오리온은 쌀과자 ‘안(An)’에 연자·군옥수수 등 현지 취향을 반영한 신맛(新味)을 연속 출시하며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K-푸드 유통 현황

K-푸드는 롯데마트·윈마트(Winmart)·메가마켓·고(Go!) 등 대형마트, 슈퍼마켓·편의점·외국계 프리미엄 식료품점을 통해 접근성이 높다. 한국산 과일은 프리미엄 이미지로 행사 코너의 주력 품목이 되고, 냉동식품 분야에서 CJ제일제당·풀무원 등이 현지 법인을 통해 만두·호떡·핫도그 등 합리적 가격대의 간편식을 공급한다. 라면·떡볶이 등 인스턴트 스낵은 팔도의 저가형 라인과 농심·삼양의 프리미엄 라인이 이원화 수요를 공략하는 구조다. 이처럼 오프라인 대형 채널 + 온라인 플랫폼이 병행 확장되며 카테고리 전반에서 일상적 소비재로 자리잡고 있다.

K-푸드 거점 확산: 베트남 내 한국계 마트 현황

K-Market(51개), 롯데마트(15개), 이마트(3개), GS25(236개) 등 한국계 유통채널이 대형마트-슈퍼-편의점 스펙트럼을 고르게 채우며 거점화되고 있다. 초기에는 한국 상품 중심 진열이 많았으나, 현재는 현지 상품 병행·서비스 체험 강화로 ‘한국식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진화했다. 즉석라면 조리기 같은 체험형 요소가 도입되고, 최근 GS25는 남부 중심에서 2025년 하노이(바딘·호안끼엠 등) 6개 매장을 동시 오픈하며 북부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채널 확장은 K-푸드의 가시성·구매 편의를 높여 재구매를 촉진한다.

전문가로부터 듣는 베트남 식품 시장 현황

현지 유통 관계자는 K-푸드 인기가 매년 빠르게 확대되고, 한국 음식이 일상 식문화에 깊숙이 스며들었다고 평가한다. 한류 콘텐츠 확산으로 맛·브랜드 신뢰가 높아지면서 식품 코너 방문·구매 빈도가 늘었고, K-푸드는 ‘문화 소비재’로 인식이 확장됐다. 향후 베트남 식품시장 내에서 가장 빠른 성장 부문 중 하나가 될 것이란 전망으로, 콘텐츠-유통-제품 현지화가 맞물린 선순환이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시사점

베트남의 K-푸드는 콘텐츠 파급력, 합리적 가격 선호, 현지화 제품, 옴니채널 유통을 축으로 대중재화에 성공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익숙한 맛과 합리적 가격을 중시해, 현지 특성을 반영한 신제품(예: 새로운 맛의 스낵·디저트)과 다양한 가격대가 필요하다. 동시에 GS25·K-Market 등 한국계 채널의 확장과 전자상거래 성장이 점점 확대를 뒷받침한다. 결과적으로 ‘보는 한류→먹는 한류’ 전환은 구조화됐고, 현지화·유통 다변화를 지속하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시장 지위를 강화할 수 있다.



동남아 조선해양 거점으로 도약하는 베트남

- 정부 정책과 글로벌 탈탄소화 흐름으로 빠르게 재편 중인 베트남 조선산업
- 국영기업 구조조정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베트남 조선산업 현황

베트남은 약 3,200km 해안선과 100만km²+ EEZ를 바탕으로 조선임지 우위를 확보했으며, 남·중·북부 전역의 조선 거점과 내륙수로 건조 인프라가 생태계를 지탱한다. 해운·내륙수로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세계 7위, 점유율 약 0.61%이며, 2030년 보유 선대 1,750척/1,800만 톤을 전망한다. 시장규모는 2023년 4억 300만 달러 → 2032년 6억 8,000만 달러로 연평균 약 6% 성장 전망이며, 현재는 중소형 벌크·유조선 중심에서 친환경·고부가 선박 건조 및 수리·개조로의 전환을 모색 중이다.

베트남 조선산업 역량 및 주요 건조 선종

현지에는 조선기업 88개, 내륙수로선박 생산시설 411개가 운영 중이며, 약 120개소가 1,000톤급 이상 건조·수리가 가능하다. 연간 신규 화물선 건조능력 약 350만 톤, 5,000DWT 초과 중대형 선박 건조 역량도 확보했다. 과거 3,000DWT 미만 중심에서 합작·기술이전을 통해 6만5천DWT급 벌크·유조선이 주력으로 자리 잡았고, 1,800TEU 컨테이너선, 4,900대급 PCTC, 10만DWT 유조선, 1만3천DWT 케미컬탱커 등 고부가 선종 건조 실적을 축적하며 중대형·특수선으로의 본격 진입 기반을 마련했다.

베트남 내 주요 조선 기업

국영 기업: 조선산업은 국영 SBIC(Shipbuilding Industry Corporation)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산하 할롱·파룽·박당·남찌에우·동파트·SSIC·SSMI 등 거점 조선소가 4만~8만DWT급 중심의 건조·수리 능력을 보유한다. 전신 비나신(Vinashin)은 과도한 확장과 부채로 2013년 파산 후 SBIC로 재편됐으나, SBIC 역시 적자·지연으로 2024년 1월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 다만 구조조정 중심 경영개선 가능성이 높고, 조선산업 개발계획 2030(2050 비전) 틀에서 단계적 재편·생산성 제고가 추진될 전망이다.

주요 외국인 투자 기업: 구조조정 국면에서 외투기업이 성장축으로 부상했다. HD현대베트남조선(HVS)은 현대미포-비나신 합작(1996)으로 출발해 2008년부터 신조를 병행, 국내 수주잔량 약 74%, 인도실적 80%+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자로 성장했다(칸호아, 약 100만m² 부지·40만DWT급 도크, 현지 고용 5천명). 그 외 Vard Vung Tau(노르웨이), Damen Song Cam(네덜란드), Piriou Vietnam(프랑스), Austal Vietnam(호주) 등이 OSV·고속여객·알루미늄·특수선 중심으로 기술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베트남 조선산업 개발 정책

정부는 「조선산업 발전계획(2020~2030, Decision 2290/QĐ-TTg)」으로 10만 톤급 이상 자국 건조 역량, 연 300만 톤 생산능력 유지, 지역별 기능 재편(북부 중대형 건조/수리, 중부 유조·서비스선, 남부 수리·부품공급, 내륙 중소형 건조), 후방산업·인력양성·품질규범 정비 등을 제시했다. 이어 교통부 초안 '2030년 개발 비전 (2050 비전 포함)'은 SBIC 구조조정·핵심 8개 조선소 정상화, 세계 신조 점유율 0.8~0.9%, 최대 7만 톤급 화물선·컨선·LPG선 생산체계, 수출선박 연 100만 톤을 목표로 한다. 중장기로는 2040년 설계·기자재 국산화를 30~40%/점유율 1%, 2050년 국산화를 50%+/점유율 2%를 제시하며 R&D·인력양성·민간·국제협력을 병행한다. 또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투자법 61/2020, 시행령 31/2021)로 조선업·어선건조업에 우대·특별우대 세제를 적용, 첨단·에너지절감형 선박·기자재 국산화 등 고부가 프로젝트에 우선 혜택을 부여한다(구체 요건은 투자 규모·기술 수준·입지에 따라 차등).

베트남 조선산업의 녹색 전환 흐름

국제해사기구(IMO)의 CII 등급제('23~)와 '28년 초과배출 선박 운항 제한을 배경으로, 베트남은 VIMC 선대 현대화를 포함해 LNG·전기·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선박 전환을 본격화했다. 정부는 「국가 녹색성장 전략('21~'30, '50 비전)」, 「교통운송부문 녹색에너지 전환·온실가스 감축 행동계획('22)」을 통해 2035년 이후 신조·개조·수입 선박의 친환경연료 전환 권고, 2050년 국내 운항 선박 100% 친환경에너지화, 항만 장비·하역시설 전력화를 제시했다. '22년 교통부 발표 인센티브로 1,500TEU+ 컨선, 청정연료 사용선, LNG 운반선 구매·운영 선사에 수입관세 면제·톤세 50% 감면을 제공, 민간 선주 교체 수요를 자극하고 친환경 전환·기자재 고도화를 촉진하고 있다.

시사점

베트남 조선산업은 정책 드라이브와 탈탄소 규범을 축으로 고부가·친환경 중심으로 재편되는 중이다. HVS 중심 외투 주도 신조 역량, 국영부문 구조조정, 우대세제·투자인센티브, CII 대응 친환경 인센티브가 맞물려 중대형 상선-특수선-친환경선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은 기술협력·현지화 생산·공동개발로 파트너십을 강화할 기회가 크다. 원문에 따르면 베트남 선박류 수출은 '21년 4,500만 달러 → '22년 1억 달러 → '24년 1억 1,000만 달러, '25년 상반기 5,600만 달러 흐름을 보이며, '25.8.12 한-베 정상회담 계기 HD한국조선해양-VIMC MOU 체결로 선대 현대화·대형 인프라 투자·기술이전·인력양성 협력이 공고해졌다. 또한 HD현대미포의 HVS 추가투자(연 15척→'30년 23척/144만DWT 목표), HD한국조선해양의 두산비나 인수 등은 LNG·친환경 기자재 역량을 강화하는 사례다. 요컨대 가격경쟁보다 기술·공급망 연계성·ESG 중심의 중장기 전략이 요구되며, 베트남을 생산·협력 거점으로 삼아 ASEAN 전역으로 밸류체인을 확장하는 모델이 유효하다. 아울러 원문 말미의 「2025 Korea-Vietnam Offshore Tech Connect」('25.11.5~6, 롯데호텔 사이공) 안내는 조선·해양플랜트·스마트항만·기자재 등 분야의 포럼·프로젝트 설명·B2B 상담을 통해 기술협력·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장으로 소개된다.



베트남 소매시장, 고성장 속 경쟁 구도 다변화

- 현대적 유통채널 중심으로 재편 중인 베트남 소매시장
- 소비자 경험을 중시하는 마케팅과 현지화를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 추세

베트남 소매시장 동향

베트남 소매시장은 2019년 931억5,870만 달러 → 2024년 1,212억 달러로 5년간 약 281억 달러 확대되었고, 2029년 약 1,700억 달러 전망이 제시된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으로 경제성장과 가계소득·소비지출 증가, 2024년 실질성장률 전년 대비 7.1%라는 양호한 거시지표, 중산층 확대와 프리미엄 선호, 현대적 유통채널 확산이 지목되며, 도시화 가속과 관광객 유입이 외식·쇼핑 지출과 인프라 확충을 자극해 성장세를 강화하고 있다.

베트남 소매시장 구조 및 경쟁 동향

소매는 오프라인 89%·온라인 11%(2024)로 구성되며, 전자결제 보급과 모바일·소셜 이용 증가에 힘입어 온라인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오프라인은 현대적 소매점(하이퍼·슈퍼·편의점), 전통 소매점(동네 잡화·시장·노점), 전문 소매점(의류·뷰티·전자 등)으로 구분된다. 전통 소매 62%가 여전히 크지만 2000년 100%에서 급감, 반대로 현대적 소매 27%는 2005년 15% → 2024년 27%로 상승했다. 도시화·중산층 소비 확대로 현대적 채널의 점포 확대가 이어지는 한편, 도시 외곽·농촌은 재래시장·소형 상점 비중이 높다. 전문 소매점은 다양한 브랜드·신제품 접근성과 트렌드 민감한 젊은층 수요에 힘입어 인기를 얻고 있다.

베트남 내 주요 오프라인 소매 기업

슈퍼마켓: WinMart 136개로 1위, Co.opmart 128개가 뒤를 잇고, Kingfood Mart 96개는 프리미엄 식품 특화, Klever Fruit 49개는 신선 과일 전문, Big C/Go! 39개는 대형몰 입점 전략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편의점: WinMart+ 3,692개가 전국망을 기반으로 생활소비 중심 유통을 강화하며, Bach Hoa Xanh 1,864개는 중저가·신선식품 중심으로 외곽·지방에 확장 중이다. Co.op Food 579개, Circle K 499개, GS25 236개 등은 간편식·음료와 프랜차이즈 모델을 통해 젊은 직장인을 공략한다.

백화점 및 대형 몰: Vincom 90개가 전국 복합몰로 시장을 선도하고, Lotte Mart 15개, AEON Mall 12개 등 외국계는 체계적 운영·품질관리·글로벌 브랜드 입점으로 프리미엄 경쟁을 주도한다. Robins 2개, Crescent Mall 1개도 핵심 도시에서 프리미엄 소비층 공략을 강화한다.

베트남 소매시장 트렌드

현지 업계에 따르면 현대적 유통채널에서의 지속적 프로모션·체험행사는 전통 소매 판매까지 파급효과가 있으며, 단기 성과가 미미해도 누적 운영 후 가시적 증가세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팝업스토어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SNS 자발 홍보를 촉진해 젊은층 참여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효과적이다. 시식·체험 행사는 “맛보고 결정” 성향의 베트남 소비자에게 신뢰·친숙도를 높이며 오프라인 판매 촉진과 피드백 수집에 유용하다. 스마트 결제는 QR·전자지갑 확산으로 현금 중심에서 디지털 금융 소비로 전환을 가속하고, 캐시리스 페스티벌 개최 등 정책 지원과 함께 전통시장·소형점포까지 모바일 결제가 보급되며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베트남 소매시장 관련 정책

소매점 운영은 허가제로 관리되어 점포 면적·입지·운영 방식 등 요건을 규정하고, 위조·불법 유통·소비자권리 침해에 대한 단속·제재를 강화한다. 식품 취급 매장은 위생·안전 기준 준수가 의무이며 위반 시 벌금·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가 따른다. 관련 규정으로 Decree 84/2024/ND-CP(소매점 설립 조건), Decree 98/2020/ND-CP(상업활동·위조·금지상품·소비자보호 위반 제재), No.41/2005/QĐ-BYT(식품안전·위생 조건), No.61/2020/QH14(투자법 제9조—외국인 소매업 조건부 허용) 등이 제시된다. 세무 측면에서는 AKFTA·VKFTA 특혜관세와 부가가치세 안내(Circular 83/2014/TT-BTC) 등을 참고해야 하며, 진출·확장 기업은 허가·품질·소비자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준법 전략이 필요하다.

시사점

안정적 성장과 디지털 전환을 바탕으로 현대적 유통채널의 확장이 빨라지고, 소비자 경험 중심 구매문화 정착으로 경쟁의 축이 경험·신뢰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팝업스토어·체험형 프로모션으로 직접 경험—SNS 후기 확산을 연계해 홍보 효율을 극대화하고, 젊은층·도시 중산층을 겨냥한 인스타그램머블 마케팅이 유효하다. 동시에 전국망 유통업체와의 파트너십·공동 프로모션으로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허가제·품질·안전기준 등 규제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소비자 경험·현지화·규제 대응을 균형 있게 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베트남 견과류 시장 동향

- 2024년 베트남 견과류 판매량 100만 6,700톤 기록
- 베트남 소비자의 건강 중시 트렌드와 함께 꾸준히 성장, 다양한 맛 선호 추세

상품명 및 HS Code

해당 품목은 HS 2008류에 속하는 가공 과실·견과·기타 식용 식물 부분으로, 설탕·감미료·주정 첨가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 분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이 중 2008.19는 땅콩을 제외한 기타 견과류 및 볶은 견과류가 포함되고, 2008.99는 조미 견과·간식용 가공 견과뿐 아니라 식용 가능한 식물의 부분과 건조 김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범주로 정의된다. 즉, 2008.19는 일반 가공 견과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2008.99는 견과 외 김류 등 잔여 품목까지 아우르는 혼합 범주라는 점이 시장 통계 해석의 전제가 된다.

시장동향

베트남의 2024년 견과류 판매 규모는 100만 6,700톤으로 집계되었으며, 2025~2029년 연평균 약 5.8% 성장해 2029년 133만 1,700톤에 이를 전망이다. 2021년의 일시적 감소는 팬데믹으로 인한 물류 차질과 소비 위축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구조적 성장 요인은 건강식품 선호 확대, 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가공식품 소비 확대, 그리고 견과류가 아침 대용·간식으로 인식되며 지속 수요가 형성된 점으로 요약된다. 전반적으로 건강 중시 트렌드가 수요 기반을 넓히고, 생활 양식 변화가 가공·포장 제품의 채널 적합성을 높이면서 성장세가 유지되는 국면이다.

對베트남 견과류 가공식품 수입 동향

2008.19 기준 총수입은 최근 3년간 등락했다. 2022년 4,312만 달러 → 2023년 2,973만 달러로 감소 후 2024년 4,283만 달러로 회복했다. 중국이 2024년 약 55%로 1위를 유지했고, 베트남(24.4%)이 2위인데 이는 내국인 수출입 제도 영향으로 해석된다. 태국(11.8%), 필리핀(1.9%) 등도 주요 원천이며, 한국은 1% 수준으로 9위다. 비중은 작지만 프리미엄·고품질 틈새 수요를 기반으로 안정적 출하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한편 2008.99는 견과 외 식물 부분·건조 김까지 포함하는 탓에, 한국의 2024년 비중이 48.9%로 1위이나 이는 김류(건조 김) 수출 비중이 큰 결과로 추정된다. 한국산 수입액은 2022년 7,023만 달러 → 2023년 2,882만 달러 → 2024년 2,785만 달러로 3년 연속 감소했으며, 반대로 중국(17.1%)·태국(15.4%)·미국(11.5%) 비중은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원산지 다변화와 현지 가공 확대가 수입 구조를 재편하는 흐름으로 나타난다.

주요 브랜드 및 트렌드

내수에서는 롱손(Long Son)·비엣 산(Viet San)·호앙 손(Hoang Son) 등 현지 기업이 캐슈넛 중심 가공·포장 역량을 바탕으로 내수와 수출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다. 블루 다이아몬드 아몬드(미국), 바프(HBAF, 한국) 등 해외 브랜드는 프리미엄 스낵·고급 견과류 포지셔닝과 다양한 맛 전략으로 경쟁을 심화한다. 소비 측면에서는 건강식품 선호와 글로벌 브랜드 선호가 함께 높아지며, 현지 기업은 가격 경쟁력·원재료 접근성을, 해외 기업은 차별화·프리미엄을 무기로 중산층·젊은 소비층을 겨냥하는 이원적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

유통 구조

USDA FAS VM2024-0032에 따르면 2023년 유통 비중은 오프라인 약 84%, 온라인 약 16%로 나타난다. 하노이·호치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형마트·슈퍼마켓·편의점 등 현대적 유통채널이 빠르게 확대되며 프리미엄 및 수입 견과류의 핵심 경로로 자리 잡는 중이다. 동시에 전자상거래 성장과 디지털 전환이 맞물려 젊은 층·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침투가 확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대적 오프라인 채널의 견조성과 온라인의 점진적 확대가 병행되는 과도기 구조이며,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도 견과류의 인기 제품화가 확인된다.

관세율 / 인증 / 시사점

관세 측면에서 2008.19 일반세율 27%, 2008.99 일반세율 45%가 적용되나, AKFTA·VKFTA 활용 시 원산지 기준 충족과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통해 관세 0% 혜택이 가능하다. 인증·규제는 식품 안전과 라벨링·표시, 기술 규정 등 관련 법령(예: Decree 15/2018/ND-CP, Decree 43/2017/ND-CP, QCVN 01-27:2010/BNNPTNT)의 적용을 받으며, 기업은 법적 요건의 면밀한 검토와 준수가 요구된다. 시사점으로, 베트남 견과류 시장은 건강식 수요 증가와 현대 유통망·편의점 확대, 온라인 채널 고도화를 동력으로 성장 여력이 크다. 다만 식품 안전·품질·원산지 증빙 등 엄격한 규제가 존재하고, 현지 가공·마케팅 역량 제고로 경쟁 심화가 진행 중이다. 특히 한국산의 2008.99 비중은 높지만 감소세인 만큼, 품질 차별화·프리미엄 포지셔닝, 현지 가공·포장(OEM),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인지도 제고 등 현지화 전략의 병행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젊은 소비층 선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볼트·너트 시장동향

- 제조업 확장과 국가 프로젝트 추진으로 성장세를 보이는 베트남 볼트·너트 산업
- 고정밀·고강도 제품은 여전히 수입 의존, 기술 제후를 통한 현지화 기회 유효

시장동향

베트남의 산업용 볼트·너트 시장은 제조업 확장과 인프라 투자 증가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4년 시장 규모는 약 2억7,000만 달러로, 연평균 6.7% 성장이 전망된다. 자동차 및 오토바이 생산 확대, 산업단지와 플랜트 건설 증가, 정밀 조립 공정 확산이 주요 수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제조 허브로 자리매김 중이며, 특히 국가 프로젝트와 주요 산업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2025년 8월에는 국경절을 맞아 전국 34개 성·시에서 250개 인프라 및 산업 프로젝트가 착공·준공되었으며, 총 투자 규모는 1,280조 동(약 485억9,149만 달러)에 달한다. 교통, 산업, 주택, 에너지 분야의 대형 사업이 대거 추진되며 중장기적으로 패스너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수입동향

베트남의 볼트·너트 시장은 국내 생산과 수입이 병행되는 구조를 보인다. 2024년 기준 수입액은 3억9,084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6% 증가했다. 주요 수입국은 중국(69.5%), 한국(11.7%), 일본(5.0%), 대만(3.1%) 순이며, 특히 중국산은 15.8% 증가해 1위를 유지했다. 한국산은 9.2% 감소했으나 여전히 2위 공급국으로 자리하고 있다. 일본과 대만의 수입은 각각 5.4%, 3.7% 증가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고, 독일·싱가포르·인도 등도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산 제품은 21.3%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중국 중심의 공급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일부 아시아권 및 유럽산 고정밀 제품 수요도 확대되는 추세다.

경쟁동향

베트남의 패스너 시장은 현지 전문 제조기업과 글로벌 공급업체 간 경쟁이 공존한다. 고정밀·고강도 제품은 여전히 수입 의존도가 높아, 해외 기업의 기술 우위가 유지되는 상황이다. 현지 기업으로는 Lidovit, Vitviet, Song Nam이 대표적이며, 대형 건설 및 제조 프로젝트에 납품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 중이다. 글로벌 진출 기업으로는 일본의 OHTA, 대만의 Lamvien Winfull, 미국의 Marmon Fastener가 있으며, 이들 기업은 자동차 및 기계 분야 중심으로 고정밀 제품을 공급한다. 한국계 기업으로는 Seoul Metal Vietnam과 KPF Vietnam이 주요 생산 거점으로, 품질 경쟁력과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업 구도는 기술 제후를 통한 현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유통구조

베트남 내 볼트·너트 제품은 주로 수입을 통해 공급되며, 도매상과 대리점을 거쳐 산업체나 건설사에 납품된다. 수입업체는 제품을 산업단지 내 도매상에 공급하고, 이들이 각 산업 수요처로 재판매하는 다단계 유통 구조를 형성한다. 일부 제품은 공구상점이나 철물점을 통해 중소 건설사와 개인 고객에게도 판매된다. 하노이 호안끼엠 거리 일대는 철물점과 공구상이 밀집한 대표 유통 중심지로, 다양한 제품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구조는 산업용 대량 납품과 소규모 거래가 병행되는 혼합형 유통 형태를 보여준다.

관세율

HS 7318은 철강제 볼트·너트·리벳 등 패스너류를 포함하며, 세부 품목인 HS 7318.15의 일반 수입관세율은 18% 수준이다. 그러나 한-베트남 FTA(VKFTA)를 활용하면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 적용을 받아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적용 시 8.8%, 한-ASEAN FTA(AKFTA) 적용 시 5%의 관세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협정별 관세 체계를 활용하는 전략적 수출입 관리가 필수적이다.

인증정보

볼트·너트 제품에는 별도의 의무 인증 제도가 없으며, 베트남 국가표준(TCVN)이 기술적 기준으로 기능한다. TCVN 1916:1995와 TCVN 8298:2009가 대표적인 규격으로, 재질, 강도 등급, 치수 허용오차, 조임력 기준 등이 명시돼 있다. 이는 법적 강제규정이 아닌 자율표준으로, 다수의 기업이 이를 준거로 제품을 제조·검사하고 있다. 현지 인증 제도의 간소성은 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사점

베트남은 산업 인프라 확충과 제조업 고도화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자동차·기계 분야에서 볼트·너트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정밀·고강도 제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에는 진출 기회가 크다. 한국 기업은 VKFT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현지 기업과의 기술 협력 및 OEM 형태의 생산거점을 통해 시장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베트남 패스너 시장은 단순 조립 부품에서 고부가가치 기술 중심 산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2025년 베트남 MZ세대가 선택한 카페 음료

- 감성·로컬리티로 변화하는 현지 카페 문화
- 3대 인기음료: 말차, 코코넛, 카페쓰어다

‘맛’보다 ‘건강’… ‘로우슈거’와 ‘기능성 음료’의 부상

베트남 카페 시장은 커피 중심에서 건강·감성·로컬리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가 뚜렷해지며, 저당 음료와 천연 재료를 사용한 콤부차, 허브티, 요거트 스무디 등의 기능성 음료가 확대되고 있다. 더 커피하우스는 천연 과일과 꿀을 활용한 ‘Hi-tea healthy’ 라인을 출시했고, 하이랜드커피는 허브티 메뉴를 강화했다. 2024년 ‘건강’을 내세운 말차 바이브(Matcha Vibe)는 2025년 현재 전국에 40개 매장을 운영하며, 매월 새로운 건강 음료를 선보이고 있다. 대표 메뉴로는 설산 밀크티, 레몬 콤부차, 핑크구아바 콤부차 등이 있다.

‘인증샷’을 위한 소비… 시각적 ‘감성’과 ‘공유’

젊은 소비자들은 음료의 맛뿐 아니라 비주얼과 공간의 감성을 중시한다. SNS 인증을 위한 ‘감성 카페’ 방문이 일상화되며, 색감이 화려한 과일 라떼나 티 음료가 인기를 얻고 있다. 하노이의 ‘치즈 커피(Cheese Coffee)’는 엔틱한 인테리어로 주목받고 있으며, 콩카페(Cong Caphe)는 재스민 녹차·오렌지주스 베이스에 레드 아티초크를 더한 ‘아티소홍머(Atiso Hong Mo)’를 출시해 시각적 만족을 강조했다.

로컬 재료를 활용한 프리미엄화

코코넛, 망고, 패션프루트 등 현지 과일을 활용한 시그니처 음료가 확산되고 있다. 콩카페는 아보카도 코코넛 커피를, 더커피하우스는 살구 아메리카노를 출시하며 베트남 고유의 맛을 강조한다. 이는 로컬 재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화 흐름을 보여준다.

베트남 카페 시장을 휩쓴 ‘Top 3’ 음료

1) ‘건강한 감성’의 아이콘, 말차 라떼

말차 라떼는 베트남 카페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대중화된 트렌드다. iPOS.vn 자료에 따르면 F&B 업계의 약 30%가 말차 음료를 새롭게 도입했으며, 전체 인기 음료 중 29.6%를 차지한다. 2024년 초부터 2025년 중반까지 말차 관련 온라인 매출은 264억 동(약 93만 달러)에 달했다. 말차의 건강한 이미지와 씹싸름한 맛이 젊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아, 플랜트 베이스, 코코넛워터 등 다양한 조합으로 확산 중이다. 스타벅스 베트남도 ‘말차 코코넛’을 출시하며 이 흐름에 동참했다.

2) ‘로컬 정체성’의 트렌디한 변신, 코코넛 커피

코코넛 커피는 베트남 전통 커피의 진한 맛에 코코넛 밀크의 부드러움을 더해 건강함과 로컬 정체성을 동시에 담은 음료로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Katinat은 단맛이 자연스러운 코코넛 커피를 출시했고, 스타벅스 역시 현지화 전략으로 코코넛 메뉴를 도입했다. 이 음료는 남부 지역의 향취를 살리면서도 세련된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되어 베트남 커피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3) 불변의 클래식, 문화가 된 ‘카페쓰어다(Ca phe sua da)’

카페쓰어다는 진한 필터 커피에 연유와 얼음을 넣은 베트남 대표 커피로, 노점부터 프랜차이즈까지 폭넓게 소비된다. 가격대는 1만~6만 동(약 0.4~2.3달러) 수준이며, 베트남 전역에서 국민 메뉴로 자리 잡았다. TasteAtlas는 2023년 카페쓰어다에 4.6/5점을 부여하며 세계 최고의 커피 중 하나로 선정했다. MZ세대는 전통 메뉴를 유지하되, 비주얼과 감성을 강조한 변형 메뉴(우유폼, 시럽, 콜드브루 혼합 등)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프랜차이즈들은 기존 레시피를 기반으로 현대적 변화를 가미한 메뉴를 함께 선보이고 있다.

시사점

베트남 카페 시장은 전통 연유커피의 탄탄한 수요 위에 MZ세대의 경험 중심 소비가 더해져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한국 기업은 로우슈거·식물성 우유 등 건강 요소와 감성적 콘셉트를 결합한 제품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SNS 확산형 소비가 뚜렷해, Q&Me 조사 기준 MZ세대의 80% 이상이 인스타그램과 틱톡을 주요 정보 채널로 사용하며, 카페 방문의 절반 이상이 사진 촬영 목적에 해당한다. 따라서 브랜드는 공간 디자인과 스토리텔링을 강화해 ‘공유하고 싶은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카페 창업 시장에서는 과당경쟁 우려도 제기된다. 현지 인터뷰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제품 다양화와 온라인 채널 경쟁이 심화되며, 민첩하고 창의적인 브랜드만이 생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미 상무부, 중국·베트남산 열성형 섬유제품에 AD·CVD 최종 판정

미 상무부는 중국·베트남산 열성형 섬유제품에 대해 반덤핑(AD)과 상계관세(CVD) 최종 판정을 내렸다. AD는 중국 기업 최대 477%대, 베트남 기업 최대 260%대가 부과되며, CVD는 중국 최대 319%, 베트남 최대 200%가 적용된다. 이들 관세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피해 판정 이후 최종 발효될 예정이다. 베트남산 해당 제품의 미국 수입액은 2022년 약 1,865만 달러, 2023년 약 2,320만 달러, 2024년 약 2,403만 달러였다.

[nhandan.vn 10.02]

▶ 하띤성 항만 개발계획 조정, 14개 신규 부두·붕양 LNG 터미널 등

베트남 중부 해안 지역이 물류·에너지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항만 확장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다. 2030년까지 14개 부두와 37~45개의 신석을 확보해 연간 6,240만~9,170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할 예정이다. 붕양과 선즈엉 항만이 확장되고, 15만 톤급 LNG 전용 부두가 신설되어 컨테이너·벌크·가스 화물 처리 기능이 강화된다. 총 301.8ha의 육상 부지와 31,495ha의 수역이 필요하며, 항로 확장을 통해 최대 30만 톤급 선박의 입항이 가능해져 북중부 지역의 물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nhandan.vn 10.02]

▶ 2025년 3분기 GDP 8.23%, 10년 만에 두 번째로 높은 성장

베트남 경제는 산업과 서비스 부문이 성장을 주도하며 연간 8.5% 성장 목표 달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8.23% 증가했으며, 1~3분기 누적 성장률은 7.85%로 코로나19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서비스 부문은 8.49%, 제조업은 9.92% 성장하며 주요 견인 역할을 했고, 수출입 총액은 6,806억 달러로 17.3%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16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대외수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vnexpress.net 10.06]

▶ 건설부, 자빈 국제공항 개발계획 조정 승인

베트남 건설부는 2025년 10월 2일 자 결정문 1672/QĐ-BXD를 통해 자빈국제공항 개발계획 조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조정안은 2021~2030년, 2050년을 내다본 비전 계획의 일환으로, 자빈 공항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 4F급 공항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자빈 공항은 북부 지역의 국제 여객과 화물 환승 허브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며, 베트남 북부 물류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강화하게 될 전망이다.

[nhandan.vn 10.06]

▶ 국가기본계획 조정 및 새로운 성장모델 구축

베트남 정부는 결의안 306/NQ-CP를 통해 2021~2030년 국가기본계획을 조정하고, 2050년을 내다본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과학, 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GDP 연평균 8% 이상 성장과 1인당 GDP 8,500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정부는 하노이와 호치민을 양대 성장축으로 설정해 남북 경제 회랑과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경제의 GDP 비중을 3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 전략은 베트남을 2030년까지 현대 산업국이자 고소득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한 중장기 국가비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nhandan.vn 10.07]

▶ 기업 자본 지속적인 증가세, 9개월간 168% 상승

베트남 재무부에 따르면 2025년 1~9월 동안 기업 자본이 전년 대비 168% 증가하며 활발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 기간 동안 신규 설립 및 재진입 기업 수는 23만 개를 넘어섰으며, 월평균 신규 기업 설립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다만 기업당 평균 자본 규모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행정 절차 간소화 등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Vietnam News 10.13]

▶ 하이퐁, 북부 자유무역지대 설립 결정

하이퐁 인민위원회는 총 6,292ha 규모의 산업·물류 허브를 2035년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 개발 계획을 추진 중임. 2030년까지 법·행정 체계와 인프라를 완비하고, 이후 2035년까지는 녹색산업과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단지로 발전시킬 계획임. 이 사업은 찬홍·홍탕(2,923ha), 단부-갯하이(1,077ha), 갯하이 특별특구(2,290ha) 등 3개 권역으로 구성되며, 항만·물류·무역 기능을 통합하여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음.

[Vnexpress.net 10.17]

▶ 국가기본계획 조정 및 새로운 성장모델 구축

베트남 정부는 결의안 306/NQ-CP를 통해 2021~2030년 국가기본계획을 조정하고, 2050년까지의 발전 비전을 제시함. 정부는 과학, 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아 2030년까지 현대 산업국이자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연평균 GDP 8% 이상 성장과 1인당 GDP 8,500달러 달성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하노이와 호치민을 양대 성장 중심으로 하는 남북 경제회랑 및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여, 디지털경제 비중을 GDP의 30%까지 확대할 계획임.

[Nhandan News 10.17]

▶ 2026년 GDP 10% 성장 및 1인당 GDP 5,500달러 목표 제시

10월 20일 열린 제15기 국회 10차 회의에서 2026년 사회경제 개발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GDP 성장률 10% 이상, 1인당 GDP 5,400~5,500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물가상승률(CPI) 4.5%, 노동생산성 8% 향상, 빈곤율 1~1.5% 감소를 추진한다. 행정 효율화와 미처리 프로젝트 해결, 전략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며, 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 철도와 남북고속철 등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또한 반도체·AI 등 11개 전략 기술 분야에서 10만 명의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11만 호의 사회주택 건설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완화, 기후변화 대응과 자연재해 예방을 강화하는 종합 로드맵을 병행 추진한다.

[Tuoitre.vn 10.20]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Dam Nai 3 Wind Power Plant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

2. 프로젝트 세부정보

발주처	Minh Thach D&L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
프로젝트	- 현장위치 : Thuan Bac and Ninh Hai Dist., Ninh Thuan Province, Vietnam - 프로젝트 진행상황: Pre F/S - 프로젝트 내용: ➤ Land area: 9.98 ha ➤ Capacity: 39.4MW ➤ Wind speed in 80m: 6.5-6.8 m/s ➤ Turbine number: 15-16 turbines (2.6 MW/turbine) ➤ Power generation capacity: 110-120 million kWh/year - 세부일정: ➤ Q2/2025: Pre F/S ➤ Q1/2026: FS ➤ Q3/2026: Bidding ➤ Q4/2026-Q2/2027: Construction ➤ Q4/2028: COD

▶ [미국] APEC 연계 한미 정상회담(10.29, 경주) 타결 주요 내용

- ◇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및 상호관세 유지 합의
 - ◇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 현금·1,500억 달러 조선 협력으로 구성
 - ◇ 투자 및 관세 조정의 적용 시점 명확화
-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미국] 트럼프 대통령, 대형 트럭, 가구, 의약품 대상 관세 부과 발표

- ◇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일부터 대형 트럭(25%), 가구(최대 50%), 의약품(100%)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 ◇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제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 것으로, 업계와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
-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미국] 트럼프 대통령, 수입산 목재 및 가구에 관세 부과 포고문 서명(9.29)

- ◇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목재 및 가구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
-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미국] 트럼프 대통령, 對中 100% 추가 관세 부과 예고 관련 주요 내용

- ◇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각 10월 10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對中 100% 추가 관세 부과 등을 발표
 - ◇ 미국의 對중국 수입품 관세율은 최대 130%까지 인상될 전망이며, 미·중 갈등 재점화 우려로 뉴욕 증시가 급락
-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5-37)] 美 특허의약품 관세 정책 추진 및 제약사별 대응 동향

- ◇ 트럼프 행정부, 특허의약품 100% 관세 잠정 연기 발표 및 화이자와 조건부 유예 합의 도출
 - ◇ 주요 글로벌 제약사는 미국 내 생산설비 신·증설로 관세 회피 및 공급망 내재화 가속화
 - ◇ 관세 유예 및 MFN 약가 협상 결과가 향후 미국 의약품 가격 및 공급망의 핵심 변수로 부각
-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5-38)] 美 무역전쟁이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에 미치는 영향 분석

- ◇ 브루킹스, 미국의 무역전쟁이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에 미치는 영향 정량 분석
 - ◇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인한 무역장벽은 달러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 미 달러의 안전자산 및 기축통화로서 지위 유지·강화를 위해 자유무역 보장 필수
-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미국] 美 11월부터 중대형 트럭 및 버스에 관세 부과, 차부품 관세 완화 정책은 확대

◇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10월 17일 포고문에 서명함에 따라 11월부터 중대형 트럭과 부품, 버스에 대한 232조 관세 시행.

◇ 트럭 및 부품에는 25%, 버스에 10%의 관세 부과.

◇ 자동차부품 관세 완화를 위한 상쇄 크레딧 정책 확대.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미국의 對멕시코·캐나다 관세 조치 및 USMCA 활용 현황

◇ 미국, 멕시코·캐나다 대상 펜타닐 관세 부과 유지

◇ 멕시코·캐나다 대상 관세 인상 및 협상 진행 중

◇ 차량 및 부품은 USMCA 준수 시 예외 적용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5-39)] 미국 중·대형 트럭 신규 관세 조치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 11월 1일부터 중·대형 트럭 수입품에 25%, 버스에 10% 232조 신규 관세 부과

◇ 관세 부담 완화 위해 '자동차 관세 상쇄 프로그램' 3.75%, 2030년까지 연장

◇ 단기적으로는 정비, 유통망 비용 상승,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 가속화 기대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푸토성-한국 기업 네트워킹 포럼

화빈, 빈푹 통합한 푸토성과의 동반 성장 모색



<2025 푸토성-한국 기관 및 기업 네트워킹 포럼 장면>

2025년 10월 28일,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KOTRA 하노이무역관, KOCHAM(주 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푸토성 인민위원회(성정부)가 협력한 ‘2025 푸토성-한국 기관 및 기업 네트워킹 포럼’이 푸토성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Trần Duy Đông 위원장과 Nguyễn Khắc Hiếu 부위원장, 푸토성 정부 관계자, 한국 대사관과 KOTRA, KOCHAM 관계자, 한국기업과 베트남 기업 관계자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베트남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빈푹성과 호아빈을 통합하며 한 단계 더 성장 동력을 확보한 푸토성이 북부 지역의 핵심 산업·경제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점에, 푸토성 정부와 한국 기업, 그리고 KOTRA·KOCHAM·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푸토성은 한국을 최대 외국인투자 파트너로 두고 있으며, 전기전자 등 제조 분야의 한국 기업은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참석 기관들은 향후에도 기술역량 강화,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행정 협력 강화를 통해 푸토성과 한국 기업 간 경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푸토성 “한국은 최대이자 가장 신뢰할 파트너”

Trần Duy Đông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2025년은 베트남-한국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새 단계로 도약하는 해”라며 “푸토성은 한국 기업의 투자와 동반 성장 덕분에 경제 기반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년 9월 기준, 푸토성은 외국인직접투자(FDI) 725건, 총 130억 달러 규모를 유치했으며, 그중 한국이 최대 투자국(380건, 약 50억 달러)으로, 지역 내 약 2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평균 월임금 110만~120만 원 수준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위원장은 “한국은 단순한 투자국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 파트너”라며, “기업의 성공이 곧 푸토성의 성공이라는 관점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인력 수급과 제도 개선, 양측 공동 해결 의지 확인

이번 포럼의 주요 의제는 '한국기업의 투자 확대와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방안 협의'였다고 할 수 있다. KOCHAM과 참가 기업 대표들은 인력 부족, 행정 절차 복잡성, 물류·인프라 개선 필요성 등을 해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기했다. 이에 푸토성은 직업훈련센터 설립, 학교-기업-지방정부 협력모델 구축, 인근 지역 인력 연계 공급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성정부는 직업훈련센터 설립과 기업-학교-정부 협력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KOTRA 하노이무역관과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KOCHAM은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수요 전달 및 협력 네트워킹 지원 역할을 하기로 했다.

“정례 대화 + 전담 창구 가동” 등을 통한 협력 체계 구축

푸토성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국 기업 전담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성 산하 ‘투자 촉진 및 기업 지원 센터(Trung tâm xúc tiến đầu tư và Hỗ trợ doanh nghiệp)’가 한국 기업의 투자 관련 절차와 애로사항을 직접 접수하고, 성 지도부와 실시간으로 협의하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푸토성 투자 촉진 및 기업 지원 센터와 법무법인 광장(베트남명: Công ty Luật TNHH Lee&Ko Vietnam)은 투자 및 법률 지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협약은 투자 관련 행정·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기업(한국 기업 포함)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KOCHAM은 기업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시로 정리해 전달하는 ‘현장 채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푸토성 Nguyễn Khắc Hiếu 부위원장은 한국 측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무·관세·노동 등 구체적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푸토성 투자 촉진 및 기업 지원 센터와 법무법인 광장 MOU 체결 장면>



문화·교육 교류, ‘한-베 문화센터’ 논의

경제협력을 넘어 문화·인적 교류 확대도 이번 포럼의 주요 화두였다. KOCHAM은 푸토성의 행정통합 이후 유희 공공시설을 활용해 ‘한-베 문화센터’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이 센터는 청년·학생 대상 문화·기술 교류, 직업 훈련 및 현장 실습형 교육, 언어·생활 지원 커뮤니티 운영 등을 포괄하는 복합 교류 허브로 계획될 전망이다. 푸토성 정부는 “한국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 초안을 마련하겠다”며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포럼에서 푸토성 정부는 “KOTRA, KOCHAM,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한, 푸토성은 한국 기업의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북부 내륙권의 중심지 푸토성에서 한국-베트남 상생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연 자리로 기록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베트남 팀코리아협의체 활동 내역은 앞으로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으로 전파가 필요하신 기관은 코트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Vision AI로 연결하는 미래: 스피어 AX, 베트남에서 길을 찾다

김광휘 법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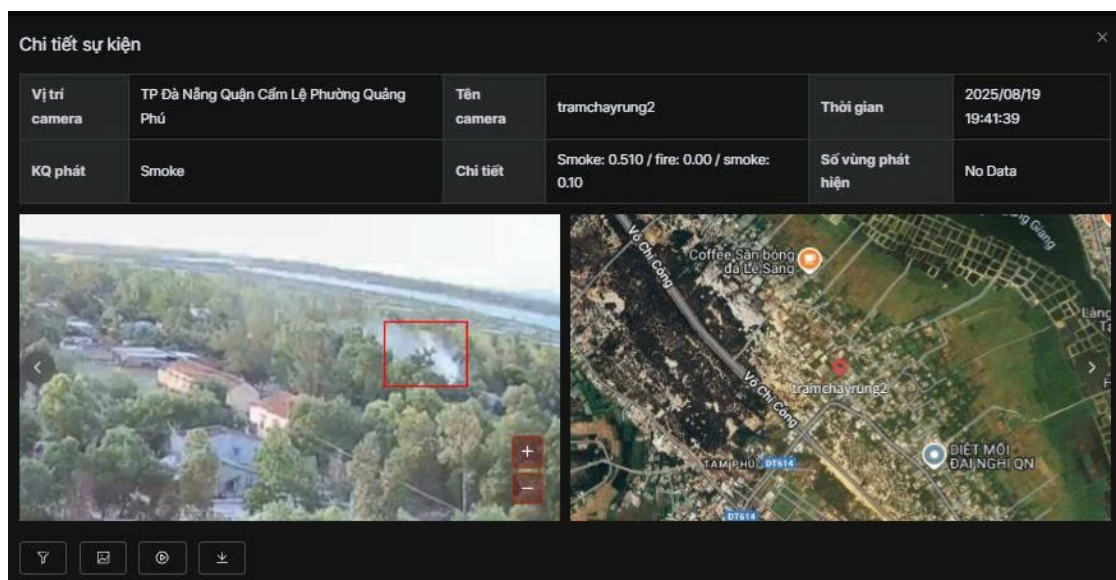
1. SPHERE AX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주)스피어에이엑스(이하 스피어AX)는 딥러닝 기술 기반의 다양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보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와 재난 안전 분야를 포함하여 스마트 교통, 스마트 농업,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영상정보를 활용한 사회 안전 강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AI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상황예측 및 분석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연재난 예방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 약 150억 원 규모의 다양한 정부 R&D 수행이력을 바탕으로 자체기술 고도화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스피어AX는 자체 영상분석 개발 시스템을 활용한 비전 데이터 기반 영상 분석이 핵심기술이며,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한국 100여개의 지자체에서 스피어AX의 다양한 Vision AI 기반 솔루션을 도입하여 사용 중입니다.

2.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피어AX는 AI기반 화재 감시솔루션 'FIREWATCHER'를 자체 개발하여 한국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FIREWATCHER는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발화지점의 연기와 불을 정확하게 포착할 뿐만 아니라, 연기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구름, 수증기, 안개 등을 정교하게 구분하여 높은 정확도의 화재감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객체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첨단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화재발생을 신속하게 검출하고 발화지점의 위치를 즉각적으로 파악하여 관리자에게 알림을 제공합니다.



<이미지 설명: AI 기반 화재 감시 솔루션 'FIREWATCHER'의 실제 감지 화면 예시>

FIREWATCHER가 경쟁사 대비 가지는 가장 큰 차별점은 다량의 국내 산림 CCTV에서 사계절 산림별 모습과 기후 및 기상들을 고려하여 유효한 산림 데이터를 110만 건 이상 확보하여 개발되었다는 점입니다. 국내의 산림 데이터가 해외 시장에도 유효한 이유는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다양한 산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많은 국가에도 활용할 수 있는 유효한 데이터입니다.

현재까지 구축한 연기 관련 정탐과 오탐 분류를 위한 AI 데이터 셋은 60만 건 이상 구축하였으며 연기를 분류하는 기준만 65가지에 이를 만큼 FIREWATCHER는 다량의 고품질 데이터로 학습되었습니다. 이미 산불 감지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GS(Good Software) 1등급 인증을 획득하였고, 기능면에서도 CCTV 50채널 환경 내 실시간 연기 감지 정확도를 측정하는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시험에서도 93.41%의 정확도를 기록해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본 솔루션의 고도화 작업을 완료하였고, 이는 외부 환경적인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탐 사례에 대해 예외처리를 가능케하여 더 높은 정확도를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CCTV가 설치된 지역의 날씨 데이터를 연계하여 날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실제 운영 환경에서 발생하는 오류 사례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VLM(Vision-Language Model)에 자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반영한 정밀 분석으로 감지 정확도를 높이며 연기 및 화재 감지구역을 설정하여 3D맵 정보를 통한 추정영역 시각화로 초기 화재 진압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3. 베트남 사업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스피어AX는 국내에서의 안정적인 수익과 성장세를 기반으로 기업의 가치와 시장을 넓히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시장의 성장세와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 2025년 5월 베트남 다낭 시에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담당자의 소견으로 베트남은 동남아국가 중 가장 신속하고 적극적인 국가 디지털 전환을 계획하고 있어 정부 및 지자체의 ICT 및 AI에 관련한 산업에 큰 관심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정부의 “디지털 전환 행동 시행 계획 (과학, 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 중앙지도위원회의 제2호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정부 및 각 부처에서 ICT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한국의 ICT 기업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광지로 알려져 있는 다낭 시는 반도체와 AI 등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디지털 전환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어,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해외 국가의 FDI에 적극적인 활동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 유치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도 지원하고 있어 베트남 시장 진출을 희망하시는 ICT/AI 기업에게는 희소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낭 시의 과학기술부 및 산하 기관에서도 첨단 기술 보유 기업의 지원과 다낭 내 인적 자원 개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어, 사업 거점 확보 후 확장에도 높은 강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4. 운영 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베트남 국가 사업을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기업의 애로 사항은 정부의 지침 및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 기업의 환경상, 해외 법인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소수인력을 기반으로 정부의 현황 분석과 향후 프로젝트 발굴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코트라 다낭 무역관의 해외 마케팅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5. 향후 계획하고 계신 신사업이 있으신가요?

베트남 법인 설립 후, 베트남 기업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업이 한국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달성한 “AI 기반 산불 감시 솔루션”을 활용하여 다낭 시를 기점으로 베트남 전역의 산림 관리 및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다낭 시와 꽝남성의 합병으로 다낭 시가 관리해야 할 산림 면적이 매우 넓어져, 사업의 필요성과 확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베트남 국영 기업 및 통신사와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림 관리 및 산불 예방 사업 외에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내 생활 안전분야, 그리고 시설 관리 분야 등 영상 분석 기술이 도입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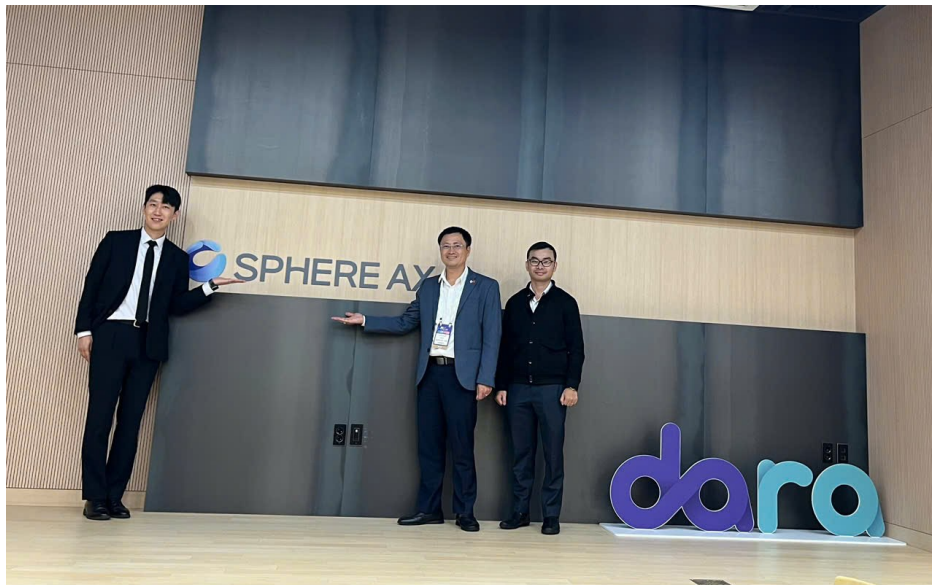
<QTC와 MOU 체결 및 기념촬영 장면>

6. 베트남 진출을 준비중인 한국기업에게 조언해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 중, ICT 및 AI 분야에 관련 기업분들께 조심스럽게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베트남은 과거 IT 아웃소싱과 같은 수동적인 시장을 넘어 자체 기술 개발과 솔루션 보유, 그리고 대기업의 빠른 성장으로 향후 ICT 분야의 큰 허브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까진 한국에 비해 내수시장이 다소 더딘 발전이라 ICT/AI 서비스 도입이 상대적으로 느린 상황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 정책과 적극적인 FDI 유치의 이점을 살려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시는 기업분들의 신속한 거점 확보와 보유하신 기술의 현지화가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다녀온 다낭 혁신스타트업센터 관계자와 기념촬영 장면>



최근 베트남 법률 개정 안내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전현우 대표변호사

들어가며

최근 베트남은 여러가지 법률을 개정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그리고 투자 인센티브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목할만한 신규 법률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투자절차 간소화

투자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신규 정책이 많이 발효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행령 239/2025/ND-CP 규정에 따라 투자등록증 발급기간이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투자정책승인 절차가 간소화되어 대규모 투자에 대한 투자심의기간도 매우 큰 폭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기존 65일의 기간이 요구되었던 총리승인 투자승인의 경우 38일로 단축되었으며 지방 인민위원회 권한에 속하는 투자정책의 경우 기존 50일에서 26일로 단축되었습니다.

투자우대업종 추가

새로운 투자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투자우대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 정수장, 발전소, 상수도 및 배수 시스템, 교량, 도로 개발 투자.
- 철도 인프라 시설 개발, 운영 및 관리, 철도 운송 사업, 철도 산업 및 철도 인적 자원 교육 투자.
- 공항, 항만, 내륙 수로 항만.
- 총리가 결정하는 공항, 기차역 및 기타 특별히 중요한 인프라 시설.

호치민 신규 공항을 비롯한 여러 교통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노동관련

시행령 219/2025/ND-CP는 2025년 8월 7일 발효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큰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 근로허가 면제범위 확대

관련 부처, 부처급 기관 또는 지방 인민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금융, 과학, 기술, 혁신, 국가 디지털 전환 분야 및 사회경제적 개발 우선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나. 단기근로에 대한 근로허가 면제 (단 사전 통지의무)

시행령 219/2025/ND-CP 제7조 제13항 가호 및 제9조 제4항에 따라: 베트남에서의 총 근무 시간이 1년 이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에 90일 미만인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 허가가 면제됩니다. 다만, 제9조 제4항에 따라: "고용주는 최소 03영업일 전에 관할 기관에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종전 규정: 시행령 152/2020/ND-CP 제7조 제2항도 1회 30일 미만, 연간 90일 이내의 경우 근로 허가를 면제했지만, 통지 의무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전문가 요건 완화

이전 최소 3년의 관련 업무 경험을 요구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다음과 같이 전문가 요건을 일원화 하였습니다.

-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최소 2년의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과학, 기술, 혁신, 국가 디지털 전환 또는 사회경제적 개발 우선 분야와 같은 특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경우 최소 1년의 경험이 있는 사람

라. 근로허가 발급기관 변경

이전에는 노동사회보훈국에서 발급하던 근로허가의 관할기관을 지방인민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부분은 현재 노동허가 발급 절차 진행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합니다.

마. 단일 근로허가를 통한 여러 시성에서의 근무

이미 근로허가를 득한 외국인근로자는 타 성 및 중앙직할시에서 근무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종전에는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각 시성별로 근로허가를 다시 취득하는 것이 요구되는 등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 단, 신규 규정에 따르면 다른 시성으로 전근할 시 최소 3영업일 전 통지가 필요합니다.

바. 외국인 고용계획 승인 및 근로허가 발급절차를 통합

이전에는 외국인 고용계획 및 근로허가를 다른 절차로 규정하여 신규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외국인 고용계획을 취득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였으나, 관련 규정 개정으로 10영업일로 통합 변경되었습니다.

소결

간략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법률 개정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10월 2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에서 추가로 여러 변경 규정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투자 진흥을 위해 큰 노력을 꾀하고 있는 바, 추가적으로 여러가지 변경 사항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큰 틀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나 단기적으로는 실무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예의 주시하는 것 필요합니다.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20탄

동아회계법인 엄진용 회계사

들어가는말

안녕하십니까? 동아회계법인 베트남 대표 엄 진용 회계사입니다. 앞선 8월호부터 10월호까지는 올해 개정된 법인세법과 부가세법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번호에서는 개정세법의 안내 때문에 잠시 쉬었던 소득세법의 내용을 지난 7월호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호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소득세법상 한국내 급여소득 등에 대한 베트남내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과세관련 사항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상의 내용입니다.

소득세법상 한국내 급여소득 등에 대한 베트남내 처리방법

지난 7월호에서 ‘세법상 거주자’의 요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이해가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의 조건이 충족되는 한, 그 조건이 충족되는 국가에 개인으로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전부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통상,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투자법인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가에서 급여를 나눠서 지급하곤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는 양 국가에서 나눠서 지급하건 아니면 베트남에서만 전액 지급을 하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지급된 급여소득에 대해 각각의 국가에서만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 자체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흔히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시고 생각하시는 점이 각각의 국가의 세법에 맞춰 정당하게 신고,납부를 다 했는데, 문제될 것이 무엇인지 여부일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점이라는 것이 각각의 국가에만 신고,납부를 했다는 점인데요. 앞서 설명했다시피 양 국가(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에 동시에 ‘세법상 거주자’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타 국가에 이미 신고,납부했던 소득에 대해서도 체류중인(즉, 세법상 거주자의 요건이 충족되는) 국가에 한 번 더 신고,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를 바꿔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각 국가에서 벌어들인 개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국가에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한 점은 당연하고 잘 하신 것이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되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법에서는 급여소득의 경우 ‘급여소득의 수령지’는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즉, 극단적으로 베트남에 체류하는 한국인 거주자에게 급여의 전부를 한국 본사에서 원화로 지급을 하더라도(즉, 베트남내에서는 형식적으로 급여소득이 전무한 경우) 이를 전액 베트남에 신고,납부하는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고의적인 탈세,탈루의 의도가 명백하다고 보고 징벌적 벌과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을 기준으로 하자면, 베트남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익년도 3월말까지 확정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통상, 한국내 발생 급여소득이 되겠지요)에 대해서는 개인 납세자 본인의 명의로 직접 신고하는 것을 전제로 익년도 4월말까지 확정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세무행정 및 관리에 관한 법 No. 38/2019/QH14, 44조 2항).

아울러, 직전연도 귀속 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근거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며, 이는 대한민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각 개개인이 직접 출력을 할 수 있으며 시기는 연말정산이 끝난 2월 중순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간혹, 한국 본사에서 직접 신고, 납부한 ‘급여명세서’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익년도 초에 반영되는 ‘연말정산’이 누락되어 있으며 또한 베트남 과세당국에서는 한국 본사에서 임의 또는 의도적으로 급여명세서를 수정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급여명세서’ 자체로는 그렇게 유용한 의미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베트남에서 ‘세법상 거주자’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한국내 개인이 발생시키는 모든 소득금액(즉, 종합소득의 개념)이 베트남내 신고, 납부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아직까지는 베트남 과세당국에서 ‘급여소득’으로 한정하여 과세하는 경향이 있으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닌 ‘종합소득신고서’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

한-베 조세조약으로 축약되어 일컬어지는 동 협정상 ‘급여소득’과 관련한 조항은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및 제 16조 이사의 보수’입니다. 아울러, 동 협정과 같은 국제조세조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시행규칙은 Circular 205/2013/TT-BTC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용과 관련한 급여소득의 경우 특수한 상황이나 조건이 아닌 경우(일반적인 베트남내 한국인 근로자의 경우가 아님. 즉, 외교관, 국제구호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파견, 베트남 정부기관 초청 등의 특수한 경우로 한정) 베트남에서 신고, 납부의무가 해제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일부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기 이행규정에 따른 면제신청을 하여도 일선 과세당국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맺음말

다음호에서는 새로운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출가공기업 전환 시 투자프로젝트 부가가치세 환급

FTA활용지원센터 이여람 관세사

2025년 9월 30일, 베트남 흥옌성 세무국은 기업의 수출가공기업(EPE) 전환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VAT) 환급 문제를 다룬 공식 서한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번 서한은 기업이 제출한 공식 서한 01/2025/CV-BB에 대한 세무당국의 회신으로, EPE 전환 시 투자 프로젝트의 VAT 환급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유사한 전환 사례에서 세무 행정의 일관성과 법적 명확성이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보고서는 해당 공식 서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세금신고

2020년 10월 19일자 시행령 126/2020/ND-CP 제7조 3항 c항은 2022년 10월 30일자 시행령 91/2022/ND-CP 제1조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납세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수출업무만을 수행하는 수출가공기업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투자에 대한 세금 환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1/2025/ND-CP호 제3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세금 공제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를 등록한 사업체는 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신규 투자 프로젝트, 확장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다수의 투자 단계 또는 다수의 투자 항목으로 나뉜 투자 프로젝트 포함, 단 기업의 고정 자산을 구성하지 않는 투자 프로젝트는 제외), 투자 단계의 석유 및 가스 탐사 및 개발 프로젝트 중 투자 단계에서 발생한 투입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은 경우, 사업체는 수행 중인 생산 및 사업 활동의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있는 경우)와 상계해야 합니다. 상계 후, 전액 공제되지 않은 투자 프로젝트의 투입 부가가치세가 3억 VND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합니다. 투자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지만(여러 단계로 나뉜 투자 프로젝트, 단계가 있는 투자 항목, 완료된 투자 항목 포함) 사업체가 투자 단계(완료된 투자 항목, 투자 단계)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아직 환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체는 투자 프로젝트 완료일 또는 투자 단계 또는 투자 항목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 프로젝트 완료일 또는 투자 단계 또는 투자 항목 완료일은 투자 프로젝트의 수익 발생일 또는 투자 단계 또는 항목의 수익 발생일입니다.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에는 시범 운영 단계 동안의 수익 발생, 재무 활동으로 인한 수익 및 투자 프로젝트의 원자재 청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3. 부가가치세 환급 조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1/2025/ND-CP호 제37조 제1항과 제39조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7조 부가가치세 환급조건

이 조항에 규정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체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1. 이 영 제29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세금환급 대상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를 세액공제방법에 따라 납부하고 , 회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회계장부와 회계문서를 작성·보관하고, 사업장의 세법에 따른 은행에 예금계좌를 보유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제 39조 경과규정

- 1) 1. 2025년 7월 1일 이전에 투자된 투자사업으로서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투자단계에 있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 제30조의 투자세액환급규정을 적용한다.

4. 결론

위 규정에 따르면, 수출 활동만을 수행하는 수출가공기업(EPE)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기업에서 EPE로 전환된 경우, 해당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전환 이전 투자단계에서 구매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한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시행령 제181/2025/ND-CP호 제30조 제1항, 제37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의 관련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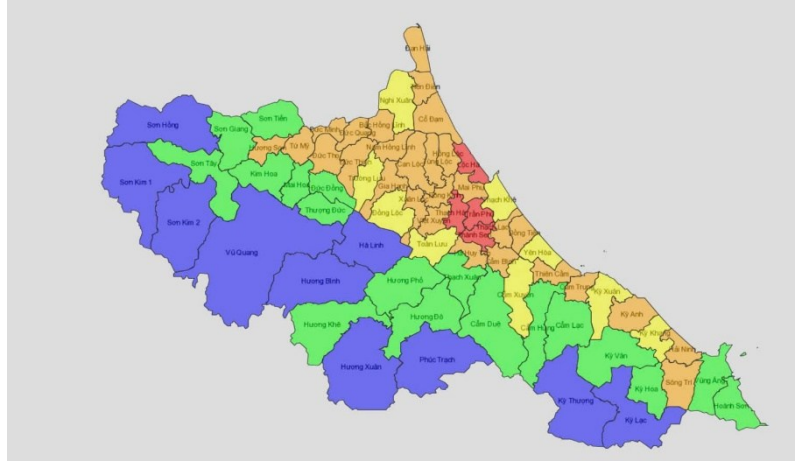
따라서 기업은 EPE 전환 시점과 투자비용의 집행 시기를 명확히 구분하여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사전 세무 검토를 통해 환급 불가에 따른 재무적 부담을 예방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본 사안은 EPE 전환 과정에서의 세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베트남 북부 유망 투자지 - 하띤성

❖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	- 면적 : 5,994 평방 킬로미터 - 인구 : 160만 명 - 도시 거주 비율 : 22.19%
지정학적 위치	- 하띤성은 베트남 중북부에 속하는 5개 성 중 하나로, 동경 105°05'50"~106°30'20"북위 17°53'50"~18°45'40"에 위치. 북쪽은 응에안성(Nghe An), 남쪽은 많은 유적지와 관광지가 있는 데오응앙(Deo Ngang) 터널로 꽝찌성(Quang Tri)과 분리. - 서쪽은 라오스의 볼리캄사이(Bolikhamsay) 주 및 캄무안(Khammuane) 주와 164km의 국경을 접함(동서경제회랑 국가 간 물류 교류 및 중계의 핵심 거점인 까우쩌오 국제국경관문 보유). 동쪽은 137km의 해안선 보유.
접근성	- 베트남 중북부 지역의 중앙에 위치한 하띤성은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안보 면에서 중요한 전략적인 지역임.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전략적 의미와 중요한 이점을 갖추고 있음. 라오스, 태국의 동북부 및 미얀마를 잇는 동서경제회랑의 물류 중계 거점임. 봉앙-선즈엉(Vung Ang - Son Duong) 항을 통해 국제 해상운송 경로와도 접하는 동서경제회랑의 해상 관문임. - 하띤성은 두 개의 남북 교통축(베트남의 주된 노선인 1A 국도 및 호치민 도로)에 위치. 태국 동북부와 라오스를 동해와 연결하는 두 개의 동서 교통축에도 포함됨. 쑤언하이(Xuan Hai) 항과 까우쩌오(Cau Treo) 국경관문을 연결하는 8A 및 8B 국도, 봉앙항에서 라오스 국경 인근까지 이어지는 12C 국도에 위치. 하띤성은 국도 시스템과 함께 철도 및 수로 시스템으로도 전국의 주요 경제 중심지들과 연결됨. 까우쩌오 국제국경관문을 통해 라오스와 연결됨. 하띤성은 베트남 수도이자 베트남의 경제, 정치, 문화, 관광의 중심지인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약 340km 떨어져 있음. - 남북경제회랑과 동서경제회랑 등 동남아 주요 경제회랑이 통과하여 메콩강 유역개발(GMS) 국가 간 협력을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위치에 있음.
GRDP 성장률 / 1인당 GDP	- GRDP 성장률 : 7~8% 1인당 GRDP : US 2,675.29달러/년 - 연평균 성장률: 16.5%
경제규모 산업별 성장률	- 총수출액 : US 25억 달러 ('24년 기준) - 산업별 성장률 : 제조업/건설업(8.2%), 서비스업(8.06%), 농림어업(3.8%)
경제구조	- 제조업/건설업 : 40.49% - 서비스업 : 34.59% - 농림어업 : 16.3%
인적자원	- 노동 연령 인구 비율 : 51.81% - 노동 연령 인구 중 직업 교육을 받은 비율 : 72% - 자격증 소지 노동자 비율: 25.7%
최저임금	500~600만 동
외국인투자 ('24.12월 기준)	총 외국인투자: 73건 FDI 프로젝트에 US 161억 달러

❖ 투자환경



하띤성의 위치 및 지도

유리한 교통 및 투자 환경

➤ 도로

하띤성의 도로교통시스템은 주로 세로·가로 축의 국도시스템과 남북철도 및 지방도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음. 남북 고속도로의 하띤성 관통 구간은 약 108km로, 득광(Duc Quang)읍의 람강(Song Lam)에서 기락(Ky Lac)읍의 개가오(Khe Gao) 계곡까지의 구간이며, 6차선 규모로 계획됨. 하띤성을 통과하는 구간은 아직 투자·건설 중이며, 그중 베트남 북부에서 바이벳(Bai Vot)까지의 구간은 이미 완료되어 시험 개통 중임. 현재 하띤성의 도로시스템은 총 741.55km의 9개 노선(국도 1, 호치민 도로, 국도 8, 국도 8B, 국도 8C, 국도 12C, 국도 15, 국도 15B, 국도 281)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8.93km의 해안도로로 계획된 1개 노선이 포함되어 있음.

➤ 수로

하띤성에는 총연장 437km의 9개 강이 있음. 대부분 규모가 작고 경사도가 급하며 폭포와 급류가 많은 강들임. 길이가 짧고 교량 높이도 낮아 운하로 개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운송 개발 목적으로 관리되는 강의 총길이는 246.5km이며, 그중 88.5km는 정부 관리, 158km는 지자체 관리 중임. 이 구간에서는 10~150톤의 선박 운항이 가능함. 나머지 190.5km 구간은 관리·수리를 위한 경비 투자가 부족하여 운하로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많음.

➤ 철도

하띤성을 통과하는 철도의 길이는 71km이며, 궤간은 협궤(1m)임. 노선 상에는 화물역 2개와 간이역 중심의 여객역 8개가 있음. 1999~2004년에 투자된 보통역인 옌쑹(Yen Trung) 역이 있으나, 규모가 작아 시민의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 철도는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경사가 급하고 구불구불하며, 장마철에는 침수와 토사 침식이 자주 발생함. 화물역과 연결되는 도로 역시 정비가 미흡하여 도로와 철도의 원활한 연결에 어려움이 있음.

➤ 항구

하띤성은 봉양-선즈엉 항구 지역과 쑤언하이(Xuan Hai) 항구를 보유하고 있음.

① 봉양 항구

- 외국인 투자를 받아 건설된 항구로, 16개 선착장 중 5개가 이미 완공되어 운영 중임.
- 1번 선착장(2001년 운영 시작): 길이 185.5m, 최대 45,000DWT의 일반 화물선 및 2,000TEU급 컨테이너선 수용, 연간 처리용량 460,000톤으로 설계.
- 2번 선착장(2010년 운영 시작): 길이 270m, 최대 55,000DWT의 목재칩 운반선, 61,617DWT급 일반 화물선, 45,000DWT급 컨테이너선 수용, 연간 처리용량 860,000톤으로 설계.
- 3번 선착장(2025년 운영 시작): 길이 225m, 45,000DWT급 선박 수용.
- 봉양 LPG 부두(2010년 운영 시작): 길이 218m, 최대 15,000WT 유조선 및 3,000DWT급 LPG선 수용, 저장창고 용량 60,000m³.
- 봉양 1 화력발전소 전용 부두(2013년 12월 운영 시작): 길이 330m, 최대 30,000DWT 석탄 운반선 수용.

② 선즈엉 항구

- 포모사(Formosa) 철강단지 전용 항구임. 총 32개 선착장 중 14개 건설 완료됨.
- 베트남 항해국으로부터 S1, S2, S3, W1, W2, W3, W4, W5, W6, W7, W10, A1, A2, N2의 운영 허가를 받음.
- 항구 전체 길이는 3,267m임.
- S1, S2, S3는 200,000DWT급 선박 수용, 3개 선착장은 50,000DWT급 선박 수용, 나머지 8개 선착장은 10,000DWT급 선박 수용.

③ 쑤언하이 항구

- 하띤성 단하이(Dan Hai) 읍에 위치한 현지 종합항구임.
- 2개 선착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1,200DWT급 선박 수용 가능(1번 선착장 길이 42m, 2번 선착장 길이 64m). 연간 처리용량 250,000톤으로 설계.

④ 기타 어항

- 하띤성은 해변을 따라 많은 소규모 어항을 보유하고 있음.
- 인프라 투자가 부족하여 대규모 원양어업에는 적합하지 않음.



붕앙 항구



선즈엉 항구

➤ 항공

하띤성에는 공항이 없으며, 성의 중심지역인 타잉센(Thanh Sen) 동에서 응에안성 빈(Vinh) 국제공항까지는 약 60km, 붕앙경제특구에서 꽝피성 동허이(Dong Hoi) 공항까지는 약 70~80km를 이동해야 함.

관광부문

➤ 유형 관광자원 - 관광지

하띤성은 해양관광, 생태관광, 문화·역사관광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음. 137km에 달하는 해안선을 따라 티엔깜(Thien Cam), 쉐안타인(Xuan Thanh), 록하(Loc Ha), 끼닌(Ky Ninh) 등 수많은 아름다운 해변이 있음. 서부에는 선킴(Son Kim) 온천, 부꽝(Vu Quang) 국립공원, 께고(Ke Go) 호수 등이 있음. 베트남의 유명한 응우옌주(Nguyen Du) 시인 유적지, 동록(Dong Loc) 삼거리 역사유적지, 흐엉딕(Huong Tich) 사원, 전설적인 명의 하이팅옌란옹 레흐우쩍(Hai Thuong Lan Ong Le Huu Trac) 유적지, 마이학데(Mai Hac De) 왕 사원, 레코이(Le Khoi) 장군 사원, 찌꾸이(Cho Cui) 사원, 응우옌티빅짜우(Nguyen Thi Bich Chau) 부인 사원, 선풍함응이(Son Phong Ham Nghi) 성, 쩌푸(Tran Phu) 서기장 기념관, 하후이텅(Ha Huy Tap) 서기장 기념관, 리뜨쑹(Ly Tu Trong) 영웅 기념관, 호 주석이 방문한 타잉센(Thanh Sen) 기념관 등 수많은 특별한 유적지가 있음. 하띤성은 495개의 도지정문화재, 82개의 국가지정문화재, 2개의 특별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음. 현재 께록(Can Loc)은 1개의 특별국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 76개의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역에서 가장 많은 국가 및 지방 지정 문화·역사유적지를 보유한 지역임.

천연자연

➤ 풍부한 광물의 매장량

하띤성은 비교적 풍부하고 다양한 천연자원을 보유함. 탁케(Thach Khe) 철광산은 5.44억 톤의 매장량을 가진 아시아에서 채광되지 않은 가장 큰 광산임. 탁케 철광산 채광 및 연간 200만 톤 규모의 광석 선광공장 사업은 탁케철광 주식회사(Thach Khe Iron Joint Stock Company)가 투자 허가를 받음.

그러나 기후 변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환경적 보장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우려, 낮은 경제 효율성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하띤성과 재정부는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이 사업을 잠정 중단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음.

➤ 넓은 산림 면적

하띤성은 2019년 기준 산림면적 비율이 52.2%로, 다양하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함. 325,000ha 이상의 대규모 산림과 벌목 가능 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임업 경제 발전, 특히 목재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임.

➤ 아름다운 경관과 다양한 유적지

하띤성은 산, 숲, 강, 계곡 등 다양한 자연 관광지와 수많은 문화·역사 유적지를 보유함. 대표적으로 응우옌주(Nguyen Du) 시인 기념관, 쩌푸(Tran Phu) 서기장 기념관, 하후이텡(Ha Huy Tap) 서기장 기념관 등이 있음. 또한 응이쑤언(Nghi Xuan)에서 끼안(Ky Anh)까지 이르는 해안선을 따라 쑤언탄(Xuan Thanh), 탁방(Thach Bang), 탁하이(Thach Hai), 티엔캄(Thien Cam), 끼쑤언(Ky Xuan), 끼닌(Ky Ninh) 등 아름다운 바닷가가 있음. 이 지역들은 관광 사업을 위해 아직 충분히 개척되지 않음. 하띤성은 또한 다양한 형태의 민간 예술(꼬담(Co Dam)의 짜주(Ca Tru) 가창, 끼안의 석부아(Sac Bua) 가창, 라강(Song La) 뱃노래, 찜택하(Giam Thach Ha) 가창, 끼에우띠엔디엔(Kieu Tien Dien) 악극 등), 문화 전통, 과거급제자 전통으로 유명한 마을, 전통공예마을 등 무형문화재 자원도 다수 보유하고 있음.

산업발전

하띤성에는 봉양경제특구와 까우쩌오 국제국경관문 경제특구 등 2개의 경제특구 외에도 설립 또는 투자 승인을 받은 5개의 산업단지(봉양 1, 자락(Gia Lach), 하방(Ha Vang), VSIP, 푸빈(Phu Vinh))과 성 계획에 포함된 산업단지들을 보유하고 있음.

순번	산업단지명	건축 장소	예상 면적 (ha)	비고
1	봉양 경제특구 내 산업단지			
	봉양 1 산업단지	봉양 경제특구	116	설립 완료, 인프라 투자, 2차 투자 산업 유치
	CN4, CN5부지 중심 산업단지	봉양 경제특구	1,235	토지 형질 변경 중
	푸빈 산업단지	봉양 경제특구	207	인프라 완료

1	호안선(Hoanh Son) 산업단지	붕앙 경제특구	41	투자자가 인프라 전개 중
	끼짱(Ky Trinh), 끼팅(Ky Thinh) 산업단지	붕앙 경제특구	310	구획계획 조사 중
	끼짱 사업단지	붕앙 경제특구	330	구획계획 조사 중
	붕앙 경제특구 건축 종합 계획/끼안(Ky Anh) 시사 지역 건축 종합 계획에 따라 다른 산업단지	계획 과정에서 확정	해당 기관의 결정에 따름	
2	경제특구 종합 계획에 따라 까우쩌오 국제국경관문 경제특구 내 산업단지	계획 과정에서 확정	해당 기관의 결정에 따름	
3	자락 산업단지	응이쑤언 읍	300	설립 완료
4	하방 산업단지	칸록 읍	100	설립 완료
5	타잉센 동 서부 산업단지	탁쑤언(Thach Xuan) 읍, 뚜안류(Toan Luu) 읍, 하후이땀 동	200	구획계획 수립 중
6	박탁하(Bac Thach Ha) 산업단지	동강(Dong Kinh) 읍 및 비엣쑤언(Viet Xuyen) 읍	418	투자자 승인 완료; 토지 형질 변경 중
7	박홍린(Bac Hong Linh) 산업단지	박홍린 동	269	구획계획 수립 중

우대정책

항목	투자지역	법인세 / 수입세 / 토지세	감세 / 면세 기한
일반 산업단지	붕앙 1 산업단지, 푸빈 산업단지, 호안선 산업단지	경제사회가 특별히 어려운 지역이나 붕앙 경제특구에 투자 시 현행 규정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 수혜 가능	
	자락 산업단지, 자락 확장 산업단지, VSIP 탁하 산업단지	경제사회가 어려운 지역에 투자 시 현행 법률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 수혜	

특별경제구역	붕앙 경제특구	경제사회가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투자 시 현행 규정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 수혜 가능	
	까오쩌오 국제국경관문 경제특구	경제사회가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투자 시 현행 규정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 수혜 가능	

❖ 외국인 투자 현황

외국인 투자

2024년 12월까지 외국인투자는 73건으로, 총투자액은 US 161억 달러임.

하띤성 내 10대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순번	사업명	투자국가	총투자액 (USD)	비고
1	하띤성 선즈엉 포머사 철강항만단지	케이먼 아일랜드	128억	활동 중
2	껀쑤옌(Cam Xuyen) 솔라 파크 태양광 발전소	싱가포르	2,910만	활동 중
3	하이비나(Haivina) 의류공장	한국	1,500만	활동 중
4	하띤 어패럴테크(APPARELTECH) 수출 의류 생산 공장	한국	600만	활동 중
5	붕앙 2 BOT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홍콩, 일본	21.87억	1호기만 운전 중
6	리티움 배터리 기술 생산 및 무역 투자 프로젝트	미국, 대만	2.75억	활동 중
7	메이플 웨스트(MAPLE WEST) 건강기능식품 생산 및 가공 공장	홍콩	163.5만	투자 절차 진행 중
8	박탁하 산업단지 인프라 건축 및 경영 투자 프로젝트 (1단계)	싱가포르	6481.3만	건설 진행 중
9	산업용 목재, 바닥용 목재, 생산용 목재부품 생산공장 한레이 (HANLEI)	중국	488만	투자 절차 진행 중

한국 투자

2024년 12월 기준으로 한국 투자자들은 2개 프로젝트에 총투자액 US 2.1천만 달러 투자.

❖ 산업단지 현황

주요 산업단지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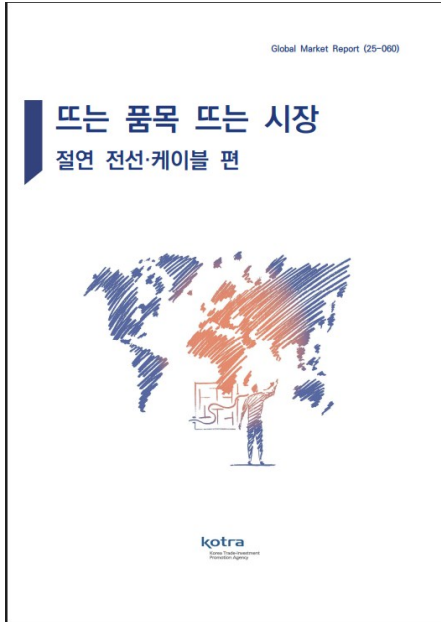
순번	산업단지명	주소	설립 연도	면적 (ha)	우선 투자유치 업종	인프라투자자
1	붕앙 1 산업단지	붕앙 경제특구		116	공업	성 경제특구 투자진흥 및 서비스 제공 센터
2	CN4, CN5 중심 산업단지	붕앙 경제특구	2024	1,235	공업, 자동차 제조 관련 보조산업	빈홈(Vinhomes) 하띤 산업단지 투자 주식회사
3	빈푸 산업단지	붕앙 경제특구	2010	207	공업	푸빈 인프라 건설 투자 주식회사
4	호안선 산업단지	붕앙 경제특구	2012	41	공업	호안선 무역 및 서비스 유한회사
5	자락 산업단지	응이쑤언 읍		100	공업	성 경제특구 투자 진흥 및 서비스 제공 센터
6	박탁하 산업단지	동킹 읍과 비엠티엤 읍	2023	418	공업	VSIP 하띤 유한회사
7	자락 확장 산업단지	응이쑤언 읍	2024	200	공업	탕롱(Thang Long) 수출입 투자 주식회사

투자 유망분야

공업, 제조업 (특히 자동차, 철강 후처리), 물류, 항만, 전기, 관광, 휴양 등.

투자유치기관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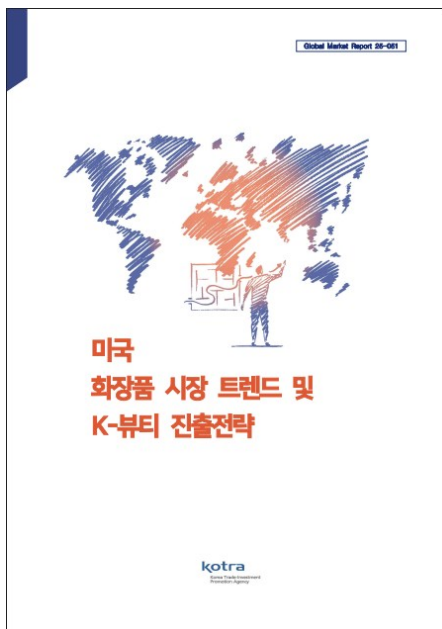
기관명	담당자	주소
하띤성 재정청 재정 서비스 및 기업 지원 센터	부센터장 Mr. Đặng Huy Cường	Tel: 0913294698 Email: xtdt.hatinh@gmail.com Website: xuctiendautu.hatinh.gov.vn
하띤성 통상청	산업관리부 전문가 Mr. Lưu Văn Định	Tel: 0919655559 Email: luuvandinh@gmail.com
하띤성 경제특구 관리 위원회	전문가 Mr. Phan Huy Viên	Tel: 0985712899 Email: phanhuyvien@gmail.com
하띤성 통상청 산업 및 투자 진흥 센터	무역투자진흥 전문가 Mr. Vũ Nam Long	Tel: 0855051525 Email: mr.namlongvu@gmail.com



뜨는 품목 뜨는 시장: 절연 전선-케이블 편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절연 전선-케이블 시장 동향
2. 주요시장 수출 현황
3. 뜨는 시장 제언



미국 화장품 시장 트렌드 및 K-뷰티 진출전략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미국 화장품 산업 시장 현황
2. 미국 내 K-뷰티 현황
3. 미국 화장품 유통 채널 현황
4. 미국 화장품 관련 규제 및 인증
5. K-뷰티 미국 시장 진출 전략

2025 베트남 하노이 식음료 및 식품 가공기기 전시회

전시회명	2025 베트남 하노이 식음료 및 식품 가공기기 전시회 [VIETFOOD & BEVERAGE 2025]
개요	- 유통업자, 레스토랑, 호텔, 베이커리, 카페 및 학교 병원 등의 다양한 산업군의 바이어들이 참가하는 베트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전시회 - 동시 개최되는 Propack 전시회로 식품 가공, 포장 까지 총 망라하는 현지 시장의 식품 산업 동향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효과적인 전시회 - 간편식 소비 증가와 같은 현재 전세계 트렌드를 반영한 전시회 구성
개최기간	2025.11.05 - 2025.11.08
개최장소	I.C.E Hanoi - Hanoi International Center for Exhibition (Cultural Palace)
개최규모	5500sqm(m ²)
웹사이트	http://hn.foodexvietnam.com/en
산업분야	식품&음료
전시품목	일반식품, 가공식품, 유제품, 수산식품, 음료, 건강식품, 식품 소재 및 첨가물 등
주최자	VINEXAD – Exhibition & Event +84-912-000-406 / daoha@vinexad.com.vn (Ms. Ha)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1988. 01. 01~2025. 09. 30기준 누계		2025. 01. 01 ~ 09. 30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 국	10,301	94,222.00	330	565.2	4,305.98
싱가포르	4,277	88,384.05	398	3,429.79	6,918.56
일 본	5,660	78,418.90	215	918.39	2,532.15
대 만	3,370	42,095.00	128	778.93	1,442.27
홍 콩	3,110	40,573.22	342	1,057.83	2,157.32
중 국	5,963	33,772.53	890	2,883.05	3,426.35
버진아일랜드(영)	945	24,408.56	27	324.98	855.15
네덜란드	468	14,921.94	20	70.55	156.88
태국	775	14,969.84	26	84.48	928.21
말레이시아	779	14,715.40	28	98.59	1,717.81
미국	1,496	12,317.22	97	448.11	629.18
기 타	7,332	64,463.96	370	1,699.49	3,310.94
전체 합계	44,476	523,262.62	2,926	12,387.93	28,543.13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2025. 9. 30 기준 누계		2025. 1. 1 ~ 9.30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8,781	322,113.84	1,052	7,270.15	16,794.28
2	부동산 경영	1,293	78,439.80	81	2,565.92	5,702.12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200	42,249.25	3	337.83	565.03
4	호텔, 외식서비스	1,060	13,215.27	65	286.35	589.74
5	건설	8,944	12,646.51	989	399.42	1,285.34
6	도소매, 유지보수	1,863	10,526.75	34	11.67	198.99
7	물류 운수	1,286	7,198.74	97	91.38	161.91
8	과학기술, 전문 활동	5,075	6,345.87	339	239.02	1,527.55
9	정보통신	3,225	5,209.08	157	32.73	82.66
10	채광	108	4,885.74	1	15	16.65
11	교육, 양성	710	4,710.80	23	2.77	119.88
12	농,임,수산	537	3,853.31	5	26.12	46.1
13	예술 오락	87	3,710.09	6	1,075.04	938.23
14	용수 공급, 폐기물 처리	152	3,169.42	2	0.28	1.61
15	의료와 사회복지	157	1,841.08	1	2	159.48
16	행정, 지원 서비스	724	1,263.57	61	25.5	169.56
17	금융, 은행, 보험	166	939.58	8	4.16	25.34
18	기타 서비스	102	933.29	2	2.6	158.67
19	가구내 고용 활동	6	10.64	-	-	-
합 계		44,476	523,262.62	2,926	12,387.93	28,543.13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증감율%)

구 분	2022	2023	2024	2025.9
수 출	3,713	3,546	4,055	3,487(+16.0)
수 입	3,589	3,263	3,807	3,319(+18.8)
무역수지	124	280	247	168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 목 명	2022	2023	2024	2025.9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7,994	52,379	53,891	43,592(+4.1)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55,536	57,336	72,584	77,485(+45.9)
기계/플랜트 및 부품	45,751	43,128	52,191	42,996(+13.5)
섬유/직물제품	37,566	33,329	37,036	29,743(+8.6)
신발류	23,895	20,237	22,871	17,792(+7.4)
원목 및 목제품	16,011	13,467	16,282	12,496(+7.6)
철강제품	7,993	3,973	4,594	4,133(+25.9)
수송수단 및 부품	11,988	14,157	15,066	12,775(+13.3)
수산물	10,923	8,971	10,040	8,169(+13.0)
원사(Yarn)	4,713	4,355	4,407	3,187(-2.1)
기 타	98,934	103,339	116,569	96,373
합 계	371,304	354,671	405,531	348,741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 목 명	2022	2023	2024	2025.9
전자제품 및 컴퓨터	81,884	87,965	107,053	109,975(+39.0)
기계/플랜트 및 부품	45,192	41,579	48,887	44,266(+24.7)
각종 전화기 및 부품	21,126	8,749	10,403	8,194(+11.0)
의류(원단)	14,706	13,016	14,905	11,225(+2.3)
플라스틱 원료	12,387	9,755	11,780	9,370(+8.9)
각종 철강	11,920	10,425	12,583	7,979(-11.0)
기타 비금속	9,253	7,626	9,554	8,171(16.6)
플라스틱 제품	8,119	7,508	8,853	7,868(+21.5)
화학제품	9,144	7,605	7,735	5,879(+2.6)
화학물질	8,747	7,726	8,286	5,912(-5.9)
기 타	136,423	124,419	140,724	153,076
합 계	358,901	326,373	380,763	331,915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1	2022	2023	2024	2025.9
1	미 국	96,293	109,388	97,020	119,501	112,770
2	중 국	56,009	57,702	61,207	61,211	49,624
3	한 국	21,945	24,293	23,498	25,619	21,372
4	일 본	20,128	24,232	23,314	24,608	19,654
5	홍 콩	11,996	10,936	9,631	12,423	12,946
6	네덜란드	7,686	10,430	10,241	12,993	9,793
7	독 일	7,286	8,968	7,400	7,934	6,963
8	인 도	6,259	7,961	8,498	9,064	7,726
9	태 국	6,161	7,476	7,192	7,782	6,344
10	영 국	5,765	6,065	6,345	7,543	6,222
	기 타	96,782	103,853	100,325	116,853	95,327
	합 계	336,310	371,304	354,671	405,531	348,741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1	2022	2023	2024	2025.9
1	중 국	109,874	117,866	110,644	114,020	134,412
2	한 국	56,155	62,088	52,511	55,925	44,445
3	대 만	20,772	22,631	18,421	22,741	24,115
4	일 본	22,648	23,373	21,638	21,588	18,243
5	미 국	15,270	14,470	13,822	15,102	13,656
6	태 국	12,564	14,092	11,797	12,447	9,686
7	오스트레일리아	7,946	10,144	8,533	7,592	5,211
8	말레이시아	8,148	9,124	7,809	9,133	8,178
9	인도네시아	7,587	9,641	8,728	10,527	8,448
10	인 도	6,950	7,086	5,864	5,829	4,350
	기 타	64,320	68,386	66,606	105,859	53,966
	합 계	332,234	358,901	326,373	380,763	291,969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율%)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9
수출	56,729(+16.9)	60,972(+7.5)	53,479(-12.3)	58,321(+9.1)	46,010(+7.0)
수입	23,965(+16.5)	26,726(+11.5)	25,941(-2.9)	28,440(+9.6)	23,532(+11.4)
무역수지	32,763	34,246	27,550	29,880	22,478

자료원: KITA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1	2022	2023	2024	2025.9
반도체	14,026(22)	16,240(15.8)	12,729(-21.6)	18,039(+41.7)	17,838(+38.7)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2,050(26.1)	12,527(4.0)	12,350(-1.4)	11,227(-9.1)	7,431(-11.9)
석유제품	1,157(-3.2)	3,733(222.3)	3,327(-10.8)	2,731(-17.7)	1,701(-21.0)
무선통신기기	3,315(-4.2)	2,358(-29.2)	2,166(-8.1)	2,511(+15.9)	1,731(-8.8)
합성수지	2,415(49.5)	2,581(6.9)	2,001(-22.5)	2,333(+16.8)	1,657(-6.7)
기구 부품	2,405(7.3)	2,194(-8.8)	1,861(-15.1)	1,772(-4.8)	1,342(-1.0)
플라스틱 제품	1,174(5.3)	1,067(-9.2)	1,021(-4.2)	1,055(+3.4)	805(+0.6)
철강판	1,267(20.4)	1,069(-15.6)	887(-17.0)	994(+12.0)	810(+25.9)
기타기계류	957(43.0)	793(-17.1)	801(+1.0)	664(-17.0)	488(-5.5)
계측제어분석기	717(4.5)	815(13.6)	734(-9.9)	593(-19.1)	433(+0.6)
기타	17,039	17,242	15,612	16,402	11,774
합계	56,729(16.9)	60,972(7.5)	53,489(-12.3)	58,321(+9.1)	46,010(+7.0)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1	2022	2023	2024	2025.9
무선통신기기	5,579(12)	5,986(7.3)	4,543(-24.1)	4,678(+3.0)	3,658(+1.8)
의류	3,393(7.9)	3,840(13.2)	3,542(-7.7)	3,593(+1.4)	2,606(-4.2)
컴퓨터	1,659(30.6)	1,948(19.1)	2,075(+6.6)	2,383(+14.9)	2,111(+17.8)
반도체	750(33.8)	787(5.0)	2,053(+160.9)	2,976(+45.0)	3,623(+75.6)
산업용 전기기기	725(26.2)	970(33.8)	1,396(+44.0)	1,699(+21.7)	1,495(+20.1)
신변잡화	984(-4.4)	1,250(27.2)	1,252(+0.1)	1,221(-2.5)	910(-3.9)
목재류	755(19.5)	942(24.8)	722(-23.3)	681(-5.7)	454(-9.5)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876(-14.7)	783(-10.5)	657(-15.9)	598(-9.1)	514(+19.5)
기구부품	624(29.6)	654(4.8)	571(-12.7)	654(-14.6)	544(+17.2)
영상기기	426(8.9)	441(3.6)	409(-7.2)	414(+1.2)	304(-1.7)
기타	8,161	9,103	8,718	9,543	7,313
합계	23,966(16.5)	26,726(11.5)	25,938(-2.9)	28,440(+9.6)	23,532(+11.4)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4~2025년 주요 경제지표 >

구 분		시 기	단위	국 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GDP증가율		2024년(연간)	%	7.09	5.03	4.4	5.1	2.5	5.7
		2025년 2Q	%	7.96	5.12	4.5	4.4	2.8	5.5
		2025년 3Q	%	8.23	N/A	2.9	5.2	N/A	N/A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4년(연간)	-	8.4	N/A	124.9	133.1	96.6	1.5
		2025년 7월	-	8.5	N/A	135.2	137.7	93.6	4.5
		2025년 8월	-	8.9	N/A	122.0	141.0	92.1	1.8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4년(연간)	-	51.0	N/A	N/A	49.35	49.9	N/A
		2025년 7월	-	52.4	49.2	49.9	49.7	51.9	50.9
		2025년 8월	-	50.4	51.5	50.0	49.9	52.7	50.8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4년(연간)	-	N/A	N/A	100.0	N/A	N/A	N/A
		2025년 7월	-	N/A	118.1	100.4	N/A	N/A	N/A
		2025년 8월	-	N/A	117.2	101.0	N/A	N/A	N/A
	소매판매	2024년(연간)	-	9.0	N/A	104.0	179.2	15.3	1.8
		2025년 7월	-	9.2	4.8	106.5	185.8	7.3	0.8
		2025년 8월	-	10.6	3.5	108.7	186.3	N/A	1.4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4년(연간)	%	3.63	N/A	2.4	1.8	108.2	3.2
		2025년 7월	%	3.19	2.37	0.6	1.2	100.2	0.9
		2025년 8월	%	3.24	2.31	0.5	1.3	100.1	1.5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4년(연간)	%	△3	4.61	N/A	3.1	N/A	N/A
		2025년 7월	%	27.3	N/A	N/A	N/A	N/A	N/A
		2025년 8월	%	27.3	N/A	N/A	N/A	N/A	N/A
고용	실업률	2024년(연간)	%	2.24	N/A	2.0	3.2	1.0	3.8
		2025년 2Q	%	2.24	N/A	1.97	3.0	0.87	3.9
		2025년 3Q	%	2.22	N/A	N/A	N/A	N/A	N/A
무역	수출증가율	2024년(연간)	%	14.3	2.28	N/A	5.7	5.5	△0.6
		2025년 7월	%	16.0	9.86	8.5	6.8	11.0	17.6
		2025년 8월	%	14.5	5.78	1.8	1.9	5.8	4.6
	수입증가율	2024년(연간)	%	16.7	5.31	N/A	13.2	5.9	1.4
		2025년 7월	%	17.8	△5.86	7.9	0.6	5.1	5.8
		2025년 8월	%	17.7	△6.56	4.0	△5.9	15.8	△4.9

[자료원]

-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MIER, S&P
 - (태국) 산업경제실(OIE), 태국중앙은행(BOT), 태국상공회의소대학교(UTCC), 태국상무부(MOC), 태국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 전망치는 *표시

베트남 진출 전략 웨비나

1. 행사개요

- 일시 : 2025.11.19.(수)
- 베트남 시간기준 : 14:00~15:50 / 한국시간기준 : 16:00~17:50
- 장소 : Zoom (온라인, 추후 이메일로 줌 주소 송부)
- 참석대상 : 베트남 진출 기업 또는 진출에 관심있는 누구나

2. 프로그램

시간	내용	연사
14:00~14:10('10)	설명회 안내	KOTRA 하노이무역관 이여람 센터장
14:10~14:30('20)	한-베 FTA 활용 가이드	서울세관 수출입지원센터 김정엽 주무관
14:30~14:50('20)	베트남 수출 시 주요 인증 및 규제, 애로 사례	KOTRA 하노이무역관 이여람 센터장
14:50~15:20('30)	베트남 세관조사 대응 및 수책관리제도	관세법인 파이더스 판창현 관세사
15:20~15:40('20)	진출기업을 위한 무역보험 지원 안내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연수 하노이지사장
15:40~15:50('10)	질의응답	

참가신청링크 (참석자 1인/신청)



[문의처]
KOTRA 하노이 FTA활용지원센터
Tel. (+84) 024-3946-0511(620)
이여람 센터장 (yeoram@kotra.or.kr)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 +84 24-3946-0511 ✉ hanjisoo@kotra.or.kr <저작권자©KOTRA >